2020년도 불교학연구회

겨울 워크숍

불교고전문헌 연구의 동향

◈ 일 시 : 2021년 2월 19일(금) 14:00 ~ 16:00

◈ 장 소 : ZOOM Online 발표

◈ 주 최 : 불교학연구회

◈ 후 원 : 재단법인 산기

KABS The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불교학연구회

▌일정표▐

- **일 시 : 2021년 2월 19일 금요일 14:00 ~ 16:00**
- **장 소 : ZOOM Online 발표**

불교고전문헌 연구의 동향

Ⅰ 부 개회식 [오후 2:00 ~ 2:10]

개회사: **임 승 택** (불교학연구회 12대 회장)

Ⅱ 부 워크숍 [오후 2:10 ~ 4:00]

사 회: **김 용 태** (동국대학교)

[제1발표]_ 남 권 희 (경북대학교) **(오후 2:10 ~ 3:00)**

分司大藏都監 **간행** 『註釋迦如來成道記』**의 서지적 분석**

논 평 : **이 종 수** (순천대학교)

※ 중간 휴식 (오후 3:00 ~ 3:10)

[제2발표]_ 박 용 진 (능인대학원대학교) **(오후 3:10 ~ 4:00)**

고려후기 및 조선전기 佛傳類**의 간행과 유통**

논 평 : **이 병 욱** (고려대학교)

Ⅲ 부 임시총회 [오후 4:10 ~ 5:00]

불교학연구회

▌목 차▐

[제1발표]

남권희_[발표] 분사대장도감 간행 『석가여래성도기주』의 서지적 분석 03

이종수_[논평] 논평문 37

[제2발표]

박용진_[발표] 고려후기 및 조선전기 佛傳類의 간행과 유통 41

이병욱_[논평] 논평문 71

※ 불교학연구회 운영 사이트 안내 ※

▶ 불교학연구회 홈페이지 : http://www.kabs.re.kr

▶ 『불교학연구』 저널페이지 : http://journal.kabs.re.kr

▶ 『불교학연구』 논문투고시스템 : http://submission.kabs.re.kr

▶ 불교학연구회 운영 YOUTUBE 채널 :
https://www.youtube.com/channel/UCdYp4Ai7FMy3KFTcfEKLZ6Q

[제1발표]

分司大藏都監 간행 『註釋迦如來成道記』의 서지적 분석

남 권 희
경북대학교

Ⅰ. 머리말

이 연구는 석가모니의 일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당의 王勃이 찬술한 『釋迦如來成道記』에 대하여 道誠이 註解한 『註釋迦如來成道記』를 서지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판본은 처음 소개되는 판본임과 동시에 고려대장경의 판각을 일부 담당하였던 分司大藏都監의 판본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의의를 갖는다.

붓다의 생애에 관한 문헌으로 인간으로서 지고의 자각에 도달한 成道와 入滅 전후에 관한 기록의 일부를 포함한 成道記는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이후 중국인들이 한문으로 작성한 문헌에 속한다. 이와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道宣이 찬술한 『釋迦氏譜』 1권, 『釋迦方志』 2권과 梁의 僧祐가 찬술한 『釋迦譜』 5권 등이 알려져 있다. 그밖에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만들어진 경전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法滅盡經』 1권도 있다. 대체로 이러한 문헌에 포함된 내용은 붓다의 선조 계보에서부터 入滅, 아쇼카왕의 불탑 건립, 법의 멸진, 미륵보살의 출세까지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저본이 되는 『釋迦如來成道記』의 저자인 王勃(647~674년)은 당나라의 시인으로 자는 字安이며 隋나라 王通의 후손으로 道誠이 쓴 이 책의 주석에 의하면 왕발의 삼형제인 王勮, 王勔, 王勃는 모두 才士로 이름이 높아 당시에 측백나무 비슷한 잎이 모두 옥구슬로 되어 있다는 전설 속의 나무인 三珠樹로 비유되어 많은 문헌들에서 故事로

인용이 빈번하였다.

전기적인 기록으로 왕발은 高宗때 궁정에 들어가 朝散郎이 되었고 劒南으로 가서 都督 閻伯嶼를 위하여 쓴 '藤王閣序' 및 詩가 유명하지만 28세로 요절하였고 盧照鄰(635-684), 駱賓王(640-684?), 陽炯(650-695)과 함께 初唐의 4걸이라고 불렸다.

王勃의 저술은 成道記외에 '釋迦畫像記', '維摩畫像碑' 등[1]으로 알려져 있고 그가 쓴『釋迦如來成道記』중 국내에 전하고 있는 것은 명대의 董其昌이 쓴 음각 탁본이 있고 이를 영인하고 趙漢福의 주석을 첨부하여 1963년에 法施舍에서 간행한 판본[2]이 있다.

이러한 저자, 주석자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이 책을 판각, 간행한 分司大藏都監에 대한 불교학, 역사학, 서지학 분야의 선행연구들이 많으며 근자에 들어 새로운 판본들이 간헐적으로 발견되어 소개됨으로 하여 分司의 지역, 역할과 보유판에 대한 연구에 여러 측면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소개되는『註釋迦如來成道記』를 통하여 이미 알려진 조선 세조때 금속활자 을해자로 찍은 판본과 1655년 燕谷寺에서 간행한 重刊本, 이후의 필사본들과의 내용과 서지적 차이를 살펴볼 수 있고 분사대장도감의 판본 연구에도 보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책의 형태서지 기술 및 내용

1. 책의 형태 및 체제

이 책은 不分卷 1책 45장의 木版本으로 크기는 23.8×14.5cm이며 현재의 상태는 앞뒤의 표지가 없고 근자에 새로 백지를 붙여두었고 바깥으로 5곳의 紙捻이 노출되어 있다.

版式은 四周單邊에 광곽의 크기가 18.6×11.5cm인 비교적 작은 형태의 판본이며 판면에 界線이 없고 大字 7행, 매행 13-15자이나 주로 14자의 배열이 주를 이룬다. 또 小字는 쌍행으로 20-21자의 형식이다. 책의 인출 시기는 인쇄상태나 종이의 지질로 판단할 때 고려시대의 印出本으로 추정되며 본문의 행간의 우측에 묵서로 쓰인 漢字 略體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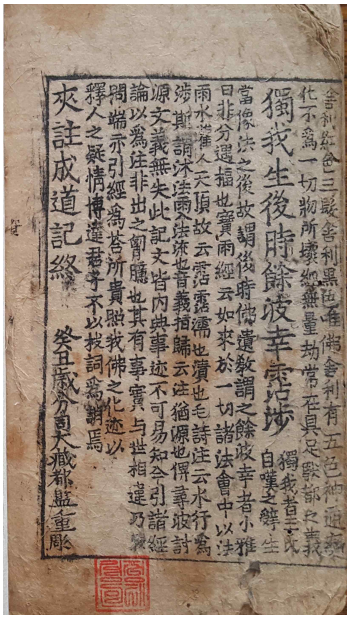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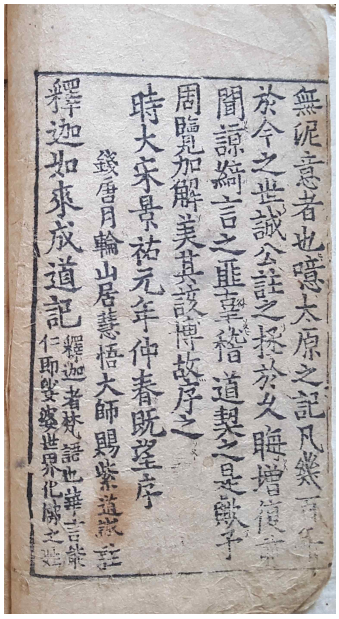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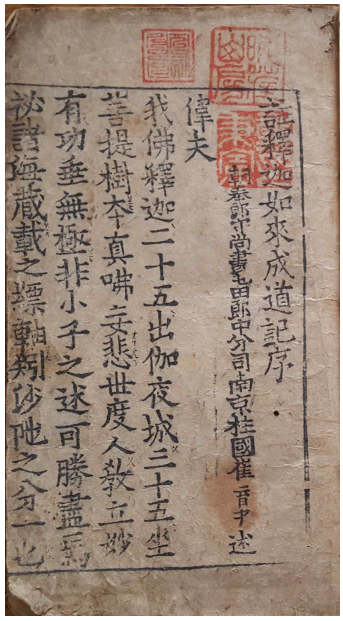
1)『佛法金湯編』, 권8 '王勃' 萬曆28年 刊本

2) 王勃 撰, 董其昌 筆, 成道記 (서울 : 法施舍出版部, 1963)

訣은 조선 초기의 것으로 판단된다.

책의 서명은 본문의 시작부분에 '釋迦如來成道記'로부터 바로 주석이 시작되어 卷首題로서는 채택하기 어렵고 내용으로 볼 때 책의 첫 부분인 '註釋迦如來成道記序'에서 사용된 『註釋迦如來成道記』를 서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서명표기로 볼 수 있고 원문본과 주석본을 구분할 수도 있다.

다만 일본의 卍續藏[3]에서는 '釋迦如來成道記註'로 표목을 채택하고 상, 하의 2권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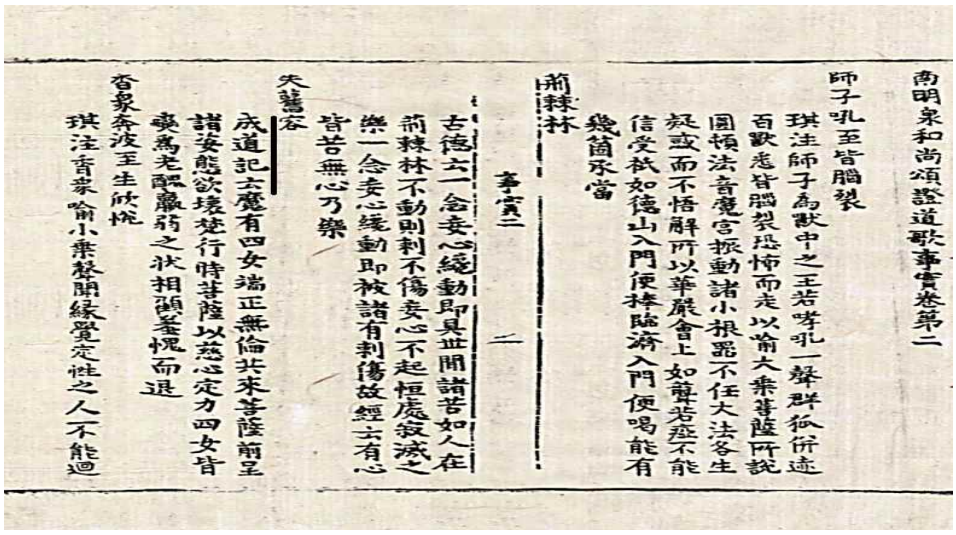
고려 판본의 권말 제목은 '夾註成道記'로 약칭하여 기록하고, 하단에 간행기록으로 '癸丑歲分司大藏都監重彫'이 있다. 즉 癸丑은 高宗 40년(1253)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분사대장도감의 補版 중 『重添足本禪苑淸規』와 『宗門摭英集』이 간행된 1254년의 한 해 앞의 기록에 해당한다.

『[註]釋迦如來成道記』癸丑歲 分司大藏都監 重彫
『重添足本禪苑淸規』甲寅歲 分司大藏都監 重造
『宗門摭英集』甲寅歲 分司大藏都監 重刻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甲寅歲 分司大藏都監 彫造
『註心賦』甲寅歲 分司大藏都監 重雕

3) 卍續藏(X), 第75冊, No.1509

이러한 기록에서 보듯 같은 '重造'의 용어를 새긴『重添足本禪苑淸規』가 권말에 저본 간기인 '聖宋政和元年上元日 重添'이라 하여 초간본을 보충하였고 이어 이를 저본으로 중간한 판본을 대상으로 고려에서 번각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 道誠이 주석한 이 판본은 1248년에 남해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되었던『南明泉和尙頌證道歌事實』제2권에서『成道記』를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王勃이 찬한『釋迦如來成道記』가 아니라『註釋迦如來成道記』를 인용한 것[4]이므로 1253년에 간행한 이 판본의 이전에 다른 異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重彫'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南明泉和尙頌證道歌事實卷第二
師子吼至皆腦裂
琪注師子爲獸中之王若哮吼一聲群狐俯迹
百獸悉皆腦裂恐怖而走以喻大乘菩薩所說
圓頓法音魔宮振動諸小根器不任大法各生
疑惑而不悟解所以華嚴會上如聾若盲不能
信受祇如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能有
幾箇承當
前棘林
事實二 二
古德云一念妄心纔動即具並聞諸苦如人在
前棘林不動則刺不傷妄心不起恒處寂滅之
樂一念妄心纔動即被諸有刺傷故經云有心
皆苦無心乃樂
失舊容
成道記云爾有四女端正無倫共來菩薩前呈
諸姿態欲壞梵行時菩薩以慈心定力四女皆
變爲老醜羸弱之狀相顧羞愧而退
香象奔波至生欣悅
琪注香象喻小乘聲聞緣覺定性之人不能迴

『南明泉和尙頌證道歌事實』제2권

책의 앞장 상단에는 所藏印으로 추정되는 근자에 찍은 한글 '[정재경인]'과 한자 '[鄭秉憲印]' '[[旽?]藏山房]'의 朱印이 있고 끝 장의 하단에도 '[정재경인]'이 있다.

책의 체제는 권수에 崔育才의 서문이 있고 이어 주석자인 道誠에 대한 저자사항 표시와 주석이 권말까지 이어지고 있다.

4) 成道記의 본문 '或無說而常說'에 대한 분사대장도감 제25장 뒤 道誠의 주석에서 '般若經云 ...' 등 ...失舊容成道記云 : '魔有四女端正無倫 共來菩薩前 呈諸姿態欲壞梵行 時菩薩以慈心定力 四女皆變爲老醜羸弱之狀 相顧羞愧而退 ...

2. 崔育才의 序文

서문의 앞에 작은 글자로 쓰인 그의 관직은 '朝奉郎 守尙書屯田郎中 分司南京柱國'으로 송대의 직위였으며 서문을 쓴 시기는 景祐 원년(1034) 2월이었다.

그가 쓴 서문에 의하면 석가가 25세에 왕성을 나와서 35세에 보리수에 앉아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구하며 사람을 바르게 이끌고자 한 모든 일이 많은 경전 속에 가득하여 한낱 범부가 다루기는 어려운 것이라 하였다. 太原 王勃은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가려 모으고 그 제목을 '釋家成道'라 하였고 석가의 생애는 인연에 따라 八相으로 나누고 입멸에까지의 일들은 사람들의 노래로, 글에서 소리로 전해졌다.

이제 慧悟大師 道誠이 慧, 義, 宗旨를 밝히고 外經에 이르기까지 천착하여 모든 것을 듣을 수 있게 하고, 풀어내기를 끊임없이 하였다. 그 記는 여러 경전의 내용을 끌어와 근거로 하고 註를 붙여 풀이한 것이다. 이러한 太原의 記가 몇 백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道誠이 註를 단 것을 두루 읽어보고 解를 보태었다고 밝혔다.

서문을 쓴 崔育才가 나타나는 다른 문헌중에는 道誠이 찬한 『釋氏要覽』[5]의 서문에도 나타나는데 당시의 관직명은 '宣德郎守尙書屯田員外郎 上輕車都尉'이며 성명은 '崔育林'[6]이다. 그 시기는 송의 天禧 4년(1020) 가을에 쓴 것으로 '註釋迦如來成道記'의 서문을 쓴 景祐 元年(1034)과는 10여년간의 차이가 있지만 관직의 이동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道誠과 崔育才가 함께 두 문헌에서 찬자와 서문을 쓴 인물로 나타나므로 그 신빙성은 높을 것이다.

註釋迦如來成道記序

偉夫我
佛釋迦二十五出伽夜城三十五坐菩提樹
本眞啼妄悲世度人教立妙有功垂無極非
小予之述可勝盡焉秘諸海藏載之縹軸矧
沙門之分一也太原王 勃 復於分一中撮其
往行顯著者治緝成記目之曰釋迦成道發
明先因鱗差於八相之分泌敷示緘筆絶於

구인사본 제 1면

釋氏要覽序 功德主仙林住山境主愚極

宣德郎守尚書屯田員外郎上輕車都尉雀 撰

昔我佛妙正三身圓成四智不泥沮而自證運流和
以度人數緣萬法指真實際道被群性了根本空設
三乘之門嚴具足之相誘有爲之執師無生之忍宗
會從源資淨徒迹乎寂滅示徃結集垂言經論以
祖述教法以標闡其爲大也至極含受而不可限量
其爲小也細而不遺視之弗見聽無央之劫不可壞
終內有之識不能雜錯綜端緒雖惟建而莫周恢博
開解非超越而不至非不由徑倩爲所依則今要覽

구인사본 제 1면 일본 목판 前川茂右衛門慰開板

5) 跋文 기록에 의하여 1433년 顧道珍에 의하여 중국에서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

다만 崔育才, 崔育材[7]와 崔育林[8]의 글자 차이에 대하여 각종 기록들이 달리 나타나 의견이 많지만 일본판의 『석씨요람』에는 崔育林으로 되어 있다.[9] 또 후술할 판본 비교에서도 임난전 乙亥字로 찍은 판본에도 崔育才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는 '才'와 '材'가 통용되어 사용되지만 일본의 『釋氏要覽』 판본들에서 보이는 '林'자는 후대 판본의 전승 과정에 발생한 오류로 판단되고 17세기 판본인 한국의 『註釋迦如來成道記』에 보이는 崔育千의 '千'은 고려 판본에 쓰인 '才'가 획이 붙어있어서 登梓本을 만들 때 잘못 판단된 것이다. 이 판본에 대하여 심지어 국내의 일부 소장처에서는 '崔育千(高麗)'로 표시되는 등 인명과 국명이 모두 잘못 채록된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3. 道誠의 註

道誠은 송대의 승려로 이 책의 본문 시작에 앞서 저자사항 표기에 '錢唐 月輪寺居 慧悟大師 賜紫 道誠 註'라고 표시하고 있다.

주석자인 道誠에 대한 전기적인 내용은 많지 않으나 스승인 당의 수도에 있는 大莊嚴寺道哲의 전기 속에 그의 제자로 道誠과 靜安이 확인된다.

우선 道哲의 행적을 傳을 통하여 살펴보면 속성이 唐氏이며 齊郡의 臨邑 사람으로 처음 潁川의 明及 법사에게 의탁하여 『十地經』과 『地持經』을 배웠고 구족계를 받고 다시 魏郡의 希 율사에게서 『四分律』을 공부하였다. 여러 경전의 이해와 방편의 종지를 일고자 약6년 동안 공부하고 노력하였고 이후 河內의 詢 선사의 설법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깨닫고 되었으며 여러 곳을 다니다가 仁覺寺에 머물러 그곳의 사문 曇遷을 만나 『攝論』을 전수받았다.

수도의 大莊嚴寺의 초청을 받아 대중과 함께 하다가 주옥현(盩屋縣?)으로 옮겨 수행

---

6) 楊守敬, 『日本訪書志』, 卷16, '釋氏要覽'

7) 『(弘治)八閩通志』, 卷34, '秩官'의 延平府 ; 宋/南劍州, 知州事에 田益 등과 수록됨.
『(嘉靖)延平府志』, '官師志', 卷2 ; 歷官
『增修雲林寺志』, 권4 ; '檀越' ; 官職方員外郎 天聖 9년(1031) 捨鹽橋住宅爲靈隱下院

8) 『(嘉靖)仁和縣志』, 卷9 ; 元대의 인물로 仁和人이며 학식이 높고 官은 職方員外郎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나 『(民國)杭州府志』, 권144 ; 宋대의 인물로 崔光禰와 같은 읍의 출신으로 仁和人이며 학식이 높고 官은 職方員外郎에 이르렀다는 앞의 기록과 같이 인용되어 혼란을 가져오지만 전체의 맥락으로 보면 송대의 인물로 추정된다.

9) 김순미, "釋氏要覽에 관한 연구", 退溪學論叢, 제36집(2020. 12), pp.227-254.

을 하고 대중과 함께 하다가 72세이던 정관 9년 정월에 다시 대장엄사로 돌아가 생을 마쳤으며 그 저술로는 10권으로 된『百識觀門』과 6권으로 된『智照自體論』그리고『大乘聞思論』등이 있다. 그의 제자로는 靜安과 道誠이 뒤를 이어 종지를 닦아 일을 바로 잡았지만 정안은 산으로 자취를 감추고 선정을 업으로 삼았다.

道誠은 송나라 초 錢塘(지금의 절강성(항주)의 승려로 호는 慧悟이고 龍華寺와 月輪寺에 기거했다. 王勃이 편찬한『釋迦如來成道記』에 注를 달았고,『尼蒙求』[10],『釋氏須知』등의 저술이 있으나 책 이름만 남아있을 뿐이다.『釋氏要覽』의 서두에 쓰인 직함 '錢塘 月輪寺居 講經論賜紫沙門 釋道誠 集'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존숭하는 승려에게 내려준 호칭인 '賜紫'의 직함을 받은 승려였으며 중국의 절강성 항주 지역의 月輪蘭若에 10년을 머무르면서 바깥과는 단절하며 오직 藏經을 읽었고 3권 3책[11]의『석씨요람』등을 편찬하였다.

한편 宣德 8년(1433)의 중국 판본『釋氏要覽』[12]의 발문을 쓴 報恩寺 寶成은 이 책을 '출가자의 규범서'라 하였고 後序를 쓴 王隨는 道誠에 대하여 내외의 학문에 밝았고 어지러운 속세와는 멀리 떨어져 항상 절에서 참선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였다.

송나라 天禧(1017~1021) 연간[13]에『석씨요람』은 '승려들이 배워야 할 것과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출가자가 佛門에 들어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을 27篇으로 요약정리한 책으로 이를 통하여 道誠의 독서량과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는 것이다.

道誠이 인용하고 있는 문헌은『書經』,『周禮』,『論語』,『呂氏春秋』,『左傳』등의 유교 관련 분야와불교 경전을 물론『西域記』,『大唐內典錄』,『寄歸傳』,『考功記』,『『開元錄』,『古今譯經圖紀』등 관련된 여러 기록을 포함하여 3백여 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처음에 스승이 머물렀던 대장엄사에서 수행하면서 도를 닦아 律部를 포괄깊이 이해하였고 강론을 통하여 대중들과 교유하던 중 도를 전수한 업적으로 궁중의 부름을 받고 瑤臺에 들어가 교화를 바로잡는데 노력하였다.

11세기에 찬집된 이후에 이 책의 부록으로 終南山의 道宣이 정리한 465조의「教誡新學比丘行護律儀」23章을 첨부하여 간행되었으며 중국과 일본에서 여러 차례 간행하여 사용되었다.

---

10)『杭州府志』, 卷89 ; '尼蒙求 一卷 釋迦如來成道記 一卷 錢塘僧 道誠撰'

11) 이 책의 11세기초 판본은 4권 2책으로 간행되었다.

12) 권말 牌記 ; 杭州府 海寧縣 許村 吉祥寺 璧峯重刊印行, 萬曆癸未(1583) 季冬吉旦

13) 馬端臨,『文獻通考』, 권227, '經籍考', 54 ; 天禧 3년(1019)에 완성

4. 본문에 墨書된 校正 내용과 口訣

1) 校正

이 책에서의 후대에 책을 읽으면서 글자를 교정하여 본문의 위아래에 교정 글자를 써 두었으나 그 중 일부는 잘못 교정된 것도 확인된다.

① 제20장앞 5행의 '同日終命生忉[林]天尸林者 .... '에서 '林'을 欄上에서 '利'로 교정하였다.

② 제31장앞 3행의 '娑羅 華言堅固 四[云]各二合則 ...'에서 '云'을 欄下에서 '方'으로 교정하여 기입하였다.

③ 제35장뒤 6행의 '燈者 如來正法 [明]喩如燈 ...'에서 '明'을 欄上에서 '眼'으로 잘못 교정하였다.

④ 제38장앞 6-7행의 '小乘而分氍扌片金上座大衆[无]其部'를 '无'를 欄上에서 교정하여 '元'으로 고치고 있으나 이는 '無'를 잘못 교정한 것이다.

⑤ 제39장앞 1행의 '小師始宗有[部]造五百部論[朋]小斥大天竺...'에서 '朋'은 교정표시 '明'

으로 우측 欄外에 기입하였다.

⑥ 제39장뒤 6행의 '劫初有外道伽[此]羅 修世定 得 ...'에서 6행의 欄上에 '此' 誤字를 '毗'로 수정하여 기입하였다.

⑦ 제42장 뒤2-3행의 '[敎]叨生季獲奉眞譚 ... 而不逢玉相'에서 2행의 欄下에 '敎'의 誤字를 수정하여 '勃'를 묵서로 기입하였다.

2) 說明 註

책의 본문에는 후대에 기록한 교정 표시 외에도 欄上의 여백에 제11장앞면 3행의 '貿'자의 이체자에 대하여 '音撫換也', '孩孺'에서 '音乳'라 하여 僻字의 음과 뜻을 기록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이 밖에 본문 중에서 앞부분의 주석을 참고하는 지시어와 성조 표시와 같은 설명도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또 사용된 단어의 풀이에서 먼저 梵語를 제시하고 中國語의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다.

① 참조 표시 ; 제45장앞 2행 '見上註'
② 성조 표시 ; 제16장앞 7행 '釋迦提婆那因 '婆上聲''
③ 언어 대비 ; '梵云 ... ' / '華言 ...' , '唐言 ...'(1회)
④ 별칭 ; '訛略云', '訛云', '略云' ;
예) ... 三十三天 ; 梵云 多羅夜登陵舍, 訛略云 忉利, 華言 三十三天
或舍衛國金地 ; 梵云 室羅伐, 訛云 舍衛, 華言 聞物城

3) 墨書 구결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간행 후 후대인이 읽으면서 작은 글자로 吐를 본문 행의 오른 쪽에 부기하고 있다. 구결자의 자형과 어휘의 형태에 의하여 그 기입된 시기를 추정하여 보면 대체로 조선 초기인 15세기 초로 판단된다. 그 사용된 구결자는 다음과 같다.

ㅊ(거) ㅁ(고) ㅏ(과) ㅌ(나) ㄱ(나) ㄱ(은) ㅌ(니) ㅣ(다) ㅊ(대) ㅿ(대)
加(더) ㅐ(두) ㅅ(더) ˋ(라) ㅅ(라) ㅈ(로) ㅉ(로) ㅐ(리) ㅜ(마) ㅜ(마)
ㅈ(며) ㅅ(사) ㅎ(사)ㄷ(시) ㅋ(아) ㅋ(옷) ㅓ(어) ㅑ(오) ㄹ(을) ㄴ(이)
ㅊ(지) ㅇ(하) ㅓ(헤) ㅣ(호) ㅌ(ㅅ)

이 구결자를 활용한 어휘와 결합유형은 다음과 같이 약 70개로 나타난다.

(사례) ㅇㅌㅌ (하나니), ㅇㅐㅓㅈ (하리어며), ㅇㄷㅌ (하시니), ㅇㅌ (하니),
ㅇㄱㅊ (한지), ㅇㅅ (하샤), ㅇㅎ (하샤), ㅇㅋ (하야), ㅇㅌˋ (하니라),
ㅇㅈ (하며), ㅣㄱㅿㄱ (혼댄), ㄴㅑ (이오), ㅊㄱㅜㄱ (컨만), ㅊㄹ (커늘),
ㅊㄷㄹ (커시늘), ㅓㄷㄹ (어실), ㄹㅈ (을로), ㅋㄱ (앤), ㅋㅌㅣ (옷다),
ㅣㅿ (호대)

III. 본문내 문헌 인용의 분석

이 책을 주석한 道誠이 인용한 문헌이나 내용의 전개상 언급된 문헌들과 자료들은 본

문의 분량에 비하여 매우 방대하다. 이미『釋氏要覽』의 설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성은 불교는 물론 유교의 문헌까지 폭넓은 자료를 인용하였고 역시 이 釋迦如來成道記의 주석에서도 같은 경향을 볼 수 있다.

1. 문헌의 인용 (....'云')

涅槃經(28회), 涅槃經義疏 序略(1회), 涅槃後分經(1회)
本行經(19회), 本行集經(2회)
9회 ; 法華經
8회 ; 華嚴經
5회 ; 婆沙論, 大婆沙論(1회)
4회 ; 瑞應經, 西域記
3회 ; 淨名經
2회 ; 普曜經, 無常經, 阿含經, 因果經, 菩薩處胎經, 瑜伽論
1회 ; 法句經, 焚燒經, 善戒經, 維摩經, 百緣經, 本起經, 寶雨經, 般若經, 楞嚴經, 三昧經,
俱舍論, 智度論, 唯識論, 顯揚論, 順正理論
長阿含經, 太善權經, 勝光王經, 金光明經, 文殊問經, 攝大乘論
大雲請雨經, 優婆塞戒經, 觀佛三昧經, 正法華嚴經, 菩提本行集經, 大方等無想經
法藏傳, 金剛經頌, 出三藏記, 金剛仙記, 音義旨歸

이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涅槃經은 원래의 명칭이 '大般涅槃經'으로 소승의 경전과 대승의 경전으로 구분된다. 먼저 소승의 '涅槃經'은 주로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부처의 입멸을 전후한 유행과 발병, 순타의 최후 공양, 쿠시나가라성의 사라쌍수 숲에서 열반에 들며 행한 최후 설법, 입멸과 제자들의 비탄, 사리의 분배 등을 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승의 涅槃經'은 보다 철학적·종교적인 의미가 강조되어 있어서 부처의 최후 설법을 통해 불신의 상주, 열반의 의미,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佛性論 등을 밝히고 있다.

즉『大般涅槃經』은 석존의 입멸에 대한 말한 경전으로 불타의 만년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경전으로 여러 갈래의 번역본이 전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

는 한역은 西晉 白法祖가 번역한『佛般泥洹經』2권, 역자를 알 수 없는 失譯本『般泥洹經』2권, 東晋 法顯이 번역한『大般涅槃經』3권, 後晉 佛陀耶舍와 竺佛念이 공동 번역한『遊行經』,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에『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가 있다. 또 東晋 法顯의『大般尼洹經』6권과 흔히 '北本'이라고 하는 北涼 曇無讖의『大般涅槃經』40권이 있고, 南宋 때 혜관, 혜엄 등이 담무참의 번역을 법현의 것과 대조, 수정한『大般涅槃經』36권이 있는데 이것을 '南本'이라고 하며 후세의 열반경에 대한 연구는 대개 남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에 會寧, 若那跋陀羅가 번역한『大般涅槃經後分』은 이 연구의 대상본인 道誠이 주석한『註釋迦如來成道記』에서 '涅槃後分經'이란 서명으로 인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인용이 많은『本生經』은 팔리어 경장의 小部에 수록된 것 가운데『本生經(Jātaka)』은 譬喩經, 佛種姓經, 所行藏經 등과 더불어 내용상 붓다의 전기나 本生 즉 전생의 이야기, 석가모니 이전에 세상에 출현하였던 過去七佛의 이야기, 유명한 불제자들의 인연 이야기 등 불교적인 설화문학이라고도 불리며 그 체계와 역사상의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부처를 신화적이며 전설적 인물로 묘사하고 현실의 초월자, 해탈자자 되는 과정에 대하여 佛本行集經, 佛所行讚 등과 함께 本生談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 비록 1회의 인용에 그친 本起經도 원전은 전하지 않고 초기의 불교문학 형태를 이루는 원천 중의 하나이다.

4회 인용이 된 瑞應經은 吳의 支謙이 223년에서 253년 사이에 번역한 것으로『瑞應本起經』,『瑞應經』이라고 하며, 별칭은『太子本起瑞應經』[14]이다. 그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儒童菩薩이었을 때 수행했던 이야기와 출가하여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전법하셨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경은 불타의 전기를 수록한 여러 경전들 중에서 구성이나 분량 및 문장 등의 면에서『修行本起經』과 가장 유사하다. 異譯本으로는 竺大力, 康孟詳의 공역인『修行本起經』2권, 求那跋陀羅 번역의『過去現在因果經』4권이 있다. 본문 중에 2회 인용된 因果經도 이『過去現在因果經』의 약칭으로 435-443년 상이에 번역된 부처님의 전기로 품이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행을 닦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도솔천에서 강림하여 태에 들고 깨달음을 이루어 여러 제자들을 제도하는 대목까지 설해져 있는 내용으로 普曜經과 일치하는 부분이

14)『太子瑞應本起經』이라고도 하며 이 경을 참조하여 竺法護가 308년에 普曜經(별칭 方等本起經)을 찬술하였다. 부처님의 생애 전반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석존 탄생으로부터 出家, 行道, 降魔, 成正覺, 初轉法輪까지의 상세한 전기를 담고 있다.

많다. 즉 瑞應經과 因果經은 異譯本의 차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은 범주이다.

한편『淨名經』과『維摩經』의 명칭은 後秦 406년에 鳩摩羅什이 번역한『維摩詰所說經』의 별칭과 약칭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한역된 이러한 경들이『大正新修大藏經』에서 '本緣部' 아래 종합되어 있는 것이 많고 본문의 인용 서명이 축약형이나 별칭 등 당시의 통용된 표현이 많고 일부의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아무튼 여기서의 의미는 이와 같은 설화가 유포되어 불교와 재가인들의 접촉이 쉬워지게 되어 인하여 훗날 성립하는 대승경전과 불교문학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道誠이 인용과 전거를 들어 풀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語錄의 인용 (....'云')

肇法師, 梁僧 亮法師, 祐法師, 梁僧 宗法師, 瑤法師

3. 儒家 文獻의 인용 (....'云')

3회 ; 周書異記

2회 ; 古今論衡, 論衡(1회)

1회 ; 毛詩注, 論語, 左傳, 唐書, 永無憂患記

여기서의 論衡은 道宣의 '佛道論衡 3卷'[15]으로 중국 後漢시대의 철학자 왕충이 지은 책인『論衡』은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周書異記』는 정사에 기록되지 않은 周代의 異聞을 기록한 책으로 현존하지 않으며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중국 불교가 유교에 대하여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僞書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즉『周書異記』는『竹書紀年』을 차용하여 佛誕을 언급하고 入滅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여 신빙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15)『宋史』, 卷205, '藝文志' 第158, 古釋氏類222부 949권 중.

4. 본문중 인용이 아닌 부분으로 경전 등이 언급된 것

3회 ; 法華經

2회 ; 俱舍論, 唯識論, 入楞伽山經,仁王經

1회 : 一切經, 金剛經, 本生經, 涅槃經, 十輪經, 般若經, 勝鬘經, 佛頂經, 十地經

顯揚論, 因明論, 因緣經, 婆沙論, 瑜伽論, 無我論, 五蘊論, 百法論, 大乘論

金光明經, 辯中邊論, 攝大乘論, 大莊嚴論, 俱舍雹論

文殊千鉢經, 般若理趣經, 二十唯識論, 三十唯識論, 三十唯識頌, 僧佉薩怛羅, 燃燈佛授記,

佛方便報恩經, 觀無量壽佛經, 十一面觀自在經, 四十二章經, 造論 3권, 順正理論

維摩畫像碑, 釋迦畫像記,[16] 滕王閣記

기타; 長阿含, 中阿含, 雜阿含, 增一阿含

華嚴[등]經

大般涅槃[등]經

華嚴李起賢愚[등]經

世轉法輪[등]經

大般若[幷]法華[등]諸經

부처의 일대기에 대한 기록은 대품이나 소품을 비롯하여 여러 경전에 흩어져 있고 여기서 언급된 문헌 중 大般涅槃經, 雜阿含經, 大梵經, 中阿含經 등에서 잘 나타난다. 불타의 교설을 모은 阿含部의 경전 등 小阿含經 중의 행장, 족보인 불타계보, 長老偈 등을 통하여 불교문학이 전개되었고 더우기 誕生, 成道, 初轉法輪, 涅槃의 네 사건을 지칭하는 四相과 이것이 확장된 八相說로 발전되어 종교성과 예술성이 내포된 불교문학을 일찍부터 성립시킨 요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한 주제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전거를 밝히고 인용한 문헌이나 본문 중의 문장 속 일부분으로 언급된 문헌들은 대체로 중복내지 유사한 성격의 문헌이 나타난다.

16)『佛法金湯編』, 권8 '王勃'에서 소개된 찬술서로 維摩畫像碑, 釋迦畫像記가 포함됨, 萬曆28年 刊本

이러한 부처님의 성도와 연등불시대의 前生談, 祇園精舍에 관련된 일화들이 합쳐져 중국에 들어와 梁 僧祐의 釋迦譜, 唐 道宣의 釋迦方志, 王勃의 釋迦如來成道記와 같은 佛典文學으로 발전되었고 그밖에 經律異相, 法苑珠林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傳記文學으로 그치지 않고 불타의 종교적 깊이와 대승의 佛信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전적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인용 문헌의 사례와 빈도를 통하여 道誠에 의한 주석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불교 경전과 疏는 물론 유교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문헌을 동원하여 폭넓은 지식으로 釋迦如來成道記의 수록 내용에 대하여 단어나 관련 내용의 주석을 단 것이 확인되었다.

Ⅳ. 分司大藏都監의 간행 판본

1. 分司大藏都監과 활동 시기

대장경의 판각을 위하여 최씨 정권은 강화도에 大藏都監, 남해에 分司大藏都監을 별도로 설치하여 사재를 내어 경판을 조성하였다. 판각을 시작한 시기는 경판의 권말 기록에 의하여 대장도감의 경우 고종 24년(1237)부터 시작하였고 남해의 분사도감에서는 고종 30년(1243)부터이다. 그러나분사도감은 그 설치시기에 대하여 대장도감과 동시에 설치되었다는 주장과 경판의 권말에 분사도감에서 판각되었다는 1243년에 기록에 의하여 설치시기를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

또 대장경 전체로 볼 때 판각이 집중된 시기를 보면 1243년부터 1244년 사이에 조판한 분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3천권이 넘는 분량이다.

현재 경판의 조성기에서 특정지역이 명시된 경우는『宗鏡錄』권27의 조성기에 '南海'라는 지역이 나타난다. 그러나 동일한 각수명이 대장도감과 분사에서 새긴 경판에 함께 나타나는 예가 있으므로 두 기관이 같은 지역일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대장경판 전체가 남해에서 간행되었다는 주장도 있고 근자에는 분사가 南海 한 곳이 아니라 開寧 등 지역에서도 分司가 설치되어 활동한[17] 자료로서『唐賢詩範』의 권말 '丙午

17) 일부의 연구에서는 斷俗寺와 伽耶山의 海印寺, 下鉅寺 및 東京의 東泉社, 掘玄寺, 昇平郡의 修

歲(1246)開寧分司大藏都監開板’ 기록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13세기 중엽 분사도감에서 조성된 대장경 이외의 목판들은 補版類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간행의 성격을 간기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天台三大部補注』乙巳歲(1245) 分司大藏都監 開板
『祖堂集』乙巳歲(1245) 分司大藏都監 雕造
『唐賢詩範』丙午歲(1246) 開寧分司大藏都監 開板
『宗鏡錄』丙午歲(1246) 分司大藏都監 開板 (제1,21,26권)
丁未歲(1247) 分司大藏都監 開板
丁未歲(1247) 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 彫造 (제16,22-24,34,35)
丁未歲(1247) 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 開板 (제27권)
丁未歲(1247) 分司大藏都監 彫造 (제32권)
戊申歲(1248) 分司大藏都監 開板
『禪宗唯心訣』辛亥歲(1251) 分司大藏都監 雕造
『東國李相國集』辛亥歲(1251) 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 雕造
『註釋迦如來成道記』癸丑歲(1253) 分司大藏都監 重彫
『註心賦』甲寅歲(1254) 分司大藏都監 重雕
『宗門摭英集』甲寅歲(1254) 分司大藏都監 重刻
『重添足本禪苑淸規』甲寅歲(1254) 分司大藏都監 重造
『天台隱士寒山拾得詩集』甲寅歲(1254) 分司大藏都監 雕造

이와 같은 기록에서 開版, 雕造, 彫造의 용어는 새로 판을 만들거나 重刊한 경우에 해당하고 重雕, 重彫, 重造, 重刻의 경우는 이미 있던 판을 바탕으로 飜刻내지 重修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 서지적인 특징은 대장경의 조성이 마무리 되던 시기에 간행된 것들은 판면의 크기가 작아지고 다양하며 서체도 각기 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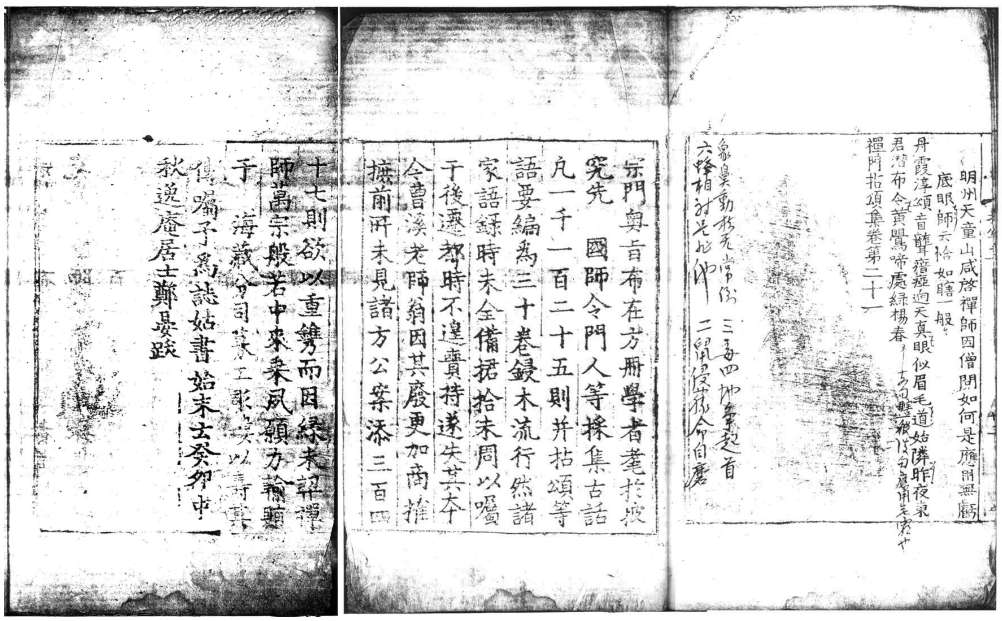
이 중『禪宗唯心訣』은 판식의 특징상 8행 16자로 변란의 크기가 正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또 이들은 대장경이 전체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시점에 판각된 것도 있다. 이에 대하여대장경 판각의 초기에서 중기 사이는 大藏目錄에 입장되어 있는 경전을 중심으로 조판하였으며, 후기로 가면서 정장의 경전별 판각을 마쳤거나 시간적으로

禪社 등과 같은 여러 사원들이 도감 산하의 판각공간으로 재편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여유가 있었던 곳에서는 外藏 또는 補遺版으로 부르는 불서와 문집 등을 판각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는 교종 및 선종관련 불교전적, 과 일부 개인문집이 있고 그 판들의 특징은 권수제 아래에 함차 표시가 없으며, 판식 또한 중앙에 판심이 나타나는 선장본의 특징을 볼 수 있다.

2. 補版

補版에는 高宗때 조성된 官板 뿐만 아니라 이후에 조성된 寺刊板도 합쳐져 있고, 그 일부는 조선시대까지 조성된 판본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正版은 모두 高宗때의 官版이고 일부가 후에 追補된 것으로 그 예로는『南明泉和尙頂證道歌事實』,『大藏一覽集』, 등과 조선시대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禮念彌陀道場懺法』등이다. 정판의 범위는 그 자체에 포함된 大藏目錄에 실려 있으나, 補版은 본래 목록조차 없고, 조선시대 말기에 雕成하여 끼워 넣으면서 이때에 판마다 음각으로 千字文의 函名을 붙였다.



鄭晏 跋文의『禪門拈頌集』

補版이란 국보 32호의 목판 가운데서 大藏目錄에 실린 正版을 제외한 나머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 보판 목록을 希一이 찬하고 海冥壯雄이 1865년에 조사하여 기록한 것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書 名	卷數	著者	年 度
宗鏡錄	100卷	宋延壽述	1246,1247,1248
南明泉和尙頂證道歌事實	3卷	未詳	1248
金剛三昧經論	3卷	未詳	1244
法界圖記叢隨錄	4卷	未詳	未詳
祖堂集	20卷	靜筠撰	1245
大藏一覽集	10卷	陳實撰	13c
禪門拈頌集	30卷	慧諶撰	1244-1248
大方廣佛華嚴經搜方齊通智九軌	9卷	智儼述	1245
十句章圓通記	2卷	均如	1250
釋華嚴旨歸章圓通鈔	2卷	均如	1251
華嚴經三寶章圓通記	2卷	均如	1251
釋華嚴教分記圓通鈔	10卷	均如	1251
禮念彌陀道場懺法	10卷	金極樂居士撰	1503
慈悲道場懺法	10卷	梁武帝時諸法師集撰	13c
華嚴經探玄記	20卷	唐法藏述	1245

이 때 해명장웅은 재조대장경에 빠져 있는 판을 보충하는 의미로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禪門拈頌集과 南明泉和尙頂證道歌事實은 발문 내용 중에서 분사도감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보판은 15종이며 마지막『補遺目錄』은 조선 高宗 2年(1865)에 雕成하여 넣은 것이다.[18] 지금까지 알려진 高宗 官板으로 조성된 補板은 거의 曹溪宗과 華嚴宗의 저술에 해당하며이러한 성격은 대장경 조성에 있어서 崔怡, 崔沆 등의 실권자들이 조계종을 후원하고 정판에『校正別錄』을 남긴 守其도 화엄종에 속한 고승이었으므로 補板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또 禪宗 전적의 중요한 부분인『宗鏡錄』과『祖堂集』을 싣고 있으면서도 오히려『傳燈錄』을 제외한 補版의 구성은 조계종이 주도적 종세를 유지했던 당시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補版과 正版과의 형태적 차이점으로는 고종시에 조성된 補版은 거의 正版의 형태를 취하지만 조선시대에 조성된 補版은 거의 절첩본의 형태거나 판 중심의 어미가 뚜렷하여 蝴蝶藏이나 包背藏, 線藏本과 같은 판식도 포함되어 있다.

---

18) 許興植, "高麗官板大藏經補板의 範圍와 思想性",『蕉雨黃壽永博士古稀紀念論叢美史學論集』, (1988), pp.494-4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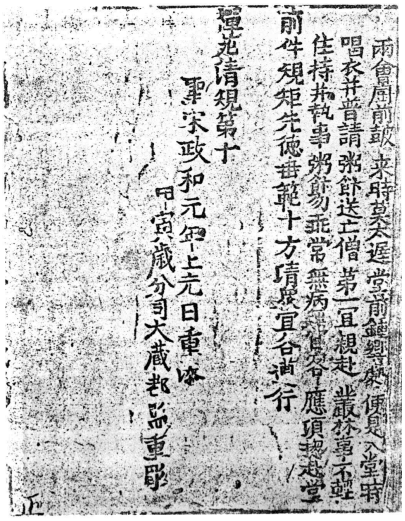
한편 分司都監에서 간행한 간기와 발문 내용으로 분사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문헌들 중 禪籍으로 분류되는 9종 중에는 이 보유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4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補遺목록 등에 포함된 문헌의 성격을 '外藏'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禪籍이라는 범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 또 이들의 판식이 正藏과 다르고 補遺版 문헌 간에도 서로 다른 판식으로 공통점이 없다.

본 연구의 대상본인 註釋迦如來成道記 역시 작은 판식에 7행(註 쌍행)의 형식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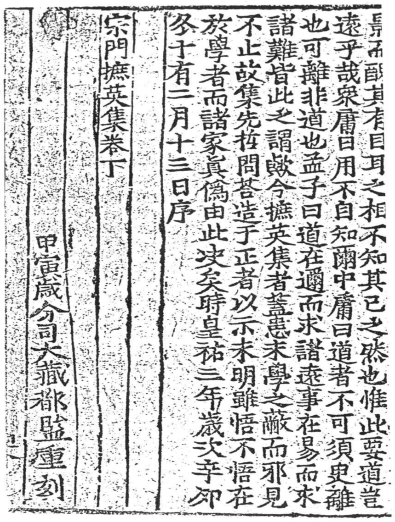
그 밖에 再雕大藏經 연구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판목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의 판으로 인출된 印本만이 현존하고 있는『宗門摭英集』,『重添足本禪苑淸規』,『天台三大部補註』,『大顚和尙注心賦』등 4종이 있다.

첫째,『宗門摭英集』은 1038년 承天惟簡이 편집한 3卷으로 禪門拈頌集과 같은 公案集이며 고승의 어록을 뽑아 수록하여 선문염송집의 토대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존본은 상권의 39, 40丈(4面)만 缺損되고 나머지는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었으며 北宋版의 서체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中·下卷에 刊記가 뚜렷하게 "甲寅年分司大藏重彫·甲寅年分司大藏都監重刻"이라 실려 있어 補版은 正藏을 완성한 1251년 이후에도 간행이 계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254年 간행의『禪苑淸規』



1254年 간행의『宗門摭英集』

둘째,『重添足本禪苑淸規』역시 인본만이 전하고 있으며 일본의 小板機融이 소장하고 있다.[19] 책의 내용은 禪院의 일상생활과 운영, 의례에 관련된 규정과 지켜야할 계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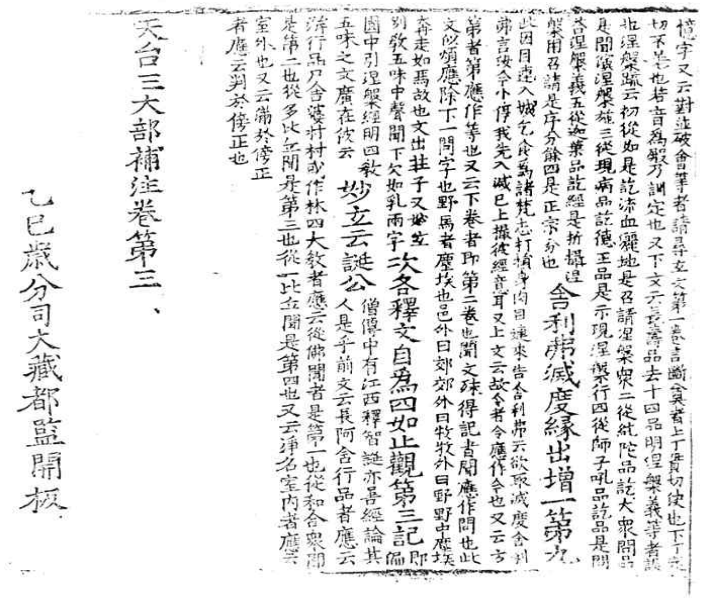
다룬 것으로 1103년에 처음 간행되었고 이를 1111년에 重添한 것이다.

현존본은 上,下 1책으로 下卷 끝에 "甲寅歲分司大藏都監重彫"라 명시되어 있어서 역시 1254년 즉 정판의 조성이 끝난 다음에 계속 조성된 예이다.[20]

셋째, 고려대학교에 소장중인 『大顚和尙註心賦』는 그 내용은 저자인 永明延壽가 楞伽經의 부처님 말씀을 노래한 心賦에 여러 경론을 인용하여 주석한 것이다.

이 책의 끝에는 "甲寅歲分司大藏都監雕造"라 명시되어 있어 分司大藏都監에서 인출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넷째, 分司都監에서 조성된 『天台三大部補註』의 印本은 다른 3종과는 달리 정장이 간행되는 도중에 새겨진 것이다. 고려 판본의 序文에 의하면 본래 14卷이었으며, 현재 고려 고종시의 판본의 인본은 卷1부터 卷5까지만 발견되었으며, 卷 1·2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각각 "乙巳分司大藏都監開版, 乙巳歲分司大藏都監彫造"라는 간기가 실려 있다. 이로 보면 1245년에 조성되었고 다른 정판의 조성이 끝나지 않은 무렵에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중요성이 있다.


天台三大部補注卷第三
乙巳歲分司大藏都監開板

補版 『天台三大部補註』

19) 崔法慧, 『高麗板 重添足本禪苑淸規』, (서울: 民族社, 1987)

20) 鏡島元隆, 『譯註 禪苑淸規』, (東京: 曹洞宗宗務廳, 1993), p.7.

3. 補版의 目錄

그 동안 補版目錄을 소홀하게 여기게 된 원인은 수록된 경전들이『大藏目錄』에 수록되지 않은 점과 또 私刊 혹은 寺刊이란 점 등에 두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작성된 시기가 조선조 말엽인 高宗 2年(1865)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경판을 저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수록의 대상이 된 경판들은 江華政府時代에 거의 대부분 판각된 것이다.[21)]

이런 補版의 雕造는 불교문화의 발전을 배경으로 볼 수 있어서, 이와 같은 사상적 변화를 대장경 편제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2중 구조로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 편제의 내용을 보면『大藏目錄』에 입장한 경판은 전통체제를 고수한 것이며,『補遺板目錄』에 수록된 대상 경판을 불교문화의 발전과 당시 교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補版 대장경의 목록을 살펴보면 그 끝에 새로『宗鏡錄』이하 15부의 章疏가 실려 있다. 그 중에는 新羅 元曉의『金鋼三昧經論』과 義相의 찬술을 후학이 주석한『法界圖』, 그리고 高麗 均如의『十句章圓通鈔』,『華嚴旨歸章圓通鈔』,『華嚴三寶章圓通記』,『華嚴教分記圓通鈔』등이 들어 있다. 이것은 高宗 2年(1865)에 대장경의 인출업무를 마치고 보유한 것이며 그 가운데, '祿'부터 '茂'字까지의 10函에 배당된『宗鏡錄』은 1246년부터 1248년까지 南海分司都監에서 개판한 것으로 판면의 형식이 正藏과 같고, 각권의 제명 아래에 函次가 판각 당시에 새겨졌다.

그리고 '庭'부터 '務'字까지의 14函은 본래 표시가 없던 것을 보유할 때 매긴 것이며, 그 가운데 '曠'부터 '遠'字까지의 函에 있는『祖堂集』, '杳'函에 있는『搜玄記』및 '農'부터 '務'까지의 函에 있는『華嚴經探玄記』에는 1245년에 분사대장도감이 판각한 간기가 표시되어 있다. '庭'字函에 있는『證道歌事實』은 1248년,『金剛三昧經論』은 1244년,『法界圖』도『證道歌事實』과 같은 판식의 소형본인 점에서 대장도감분사에서 개판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面'函에 있는『大藏一覽集』까지도 같은 시기로 추정되지만, '本'字 函의『禮念彌陀道場懺法』만은 1502년에 重刻되었다.

이러한 최근까지 발견되고 있는 分司大藏都監의 간행본들은 대체로 대장경의 판각을 마친 시점에서 그 여력을 이용하여 禪宗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수요가 있는 문헌들이 간행된 것이라 추정된다. 더불어 현재까지 알려진 이 범주의 문헌중 正藏이

21) 金潤坤, "江華經板 高麗大藏經 內·外藏의 특징",『民族文化論叢』, 18·19집(1988), pp.77-81.

간행중인 1245년의 간기가 새겨진 『天台三大部補註』에서만 고려왕들의 避諱가 보이고 다른 자료들에선 확인되지 않는다.

Ⅴ. 『釋迦如來成道記』와 『註釋迦如來成道記』의 판본

이 책이 처음 王勃에 의하여 찬술된 이후 여러 판본이 유통되었겠지만 현존하는 중국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嘉靖년간에 간행된 『五嶽山人集』 권24에 '釋迦如來成道記序 一首'의 기록에서 王勃이후 慧悟大師 道誠이 注를 하였고 錢唐 大佛沙門 眞琦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간행하고자 할 때 서문을 쓴 것이 있다. 또 崇禎 6年(1633)에 간행한 『吳興藝文補』 권39에도 明得이 쓴 '釋迦如來成道記序'에서 南齊 僧祐의 『釋迦譜』 10권과 唐 道宣의 『釋迦氏譜』 1권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王勃이 찬한 것이라 하였다.

청대의 의학자로 傅靑主로 알려진 傅山(1607-1684)의 문집인 『霜紅龕集』[22] 권16의 敍 중에서 '重刻釋迦成道記叙'에서 雪峯上人이 후학들을 위하여 成道記를 새겨 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랜 세월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세인에게 佛性을 깨닫게 하고자 다시 중각하는 서문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첨부된 주석에 의하면 이 글은 傅山이 지은 것이 아니라 1648년(戊子)에 구한 것이라 밝혀두었다.

光緖 년간에 간행된 『善本書室藏書志』 권22의 '淸涼傳 2卷, 廣淸涼傳 3卷, 續淸涼傳 2卷'[23]의 항목에서 何夢華藏書의 鈔本에 왕발의 釋迦佛賦, 釋迦如來成道記, 補陀傳 등이 첨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내용이 『皕宋樓藏書志』의 권65, 子部의 金나라 간본 '續淸涼傳'에도 수록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또 『全唐文』 권182에도 성도기의 全文이 수록되어 있다.

역대의 서목 중에서 道誠의 註本이 저록된 문헌은 『天一閣書目』 卷3之2 '子部'에 '1卷 唐王勃撰 慧悟大師 道誠註'과 『(雍正)浙江通志』 卷246, 宗傳에도 『百川書志』 卷11 '子部'의 기록을 인용하여 저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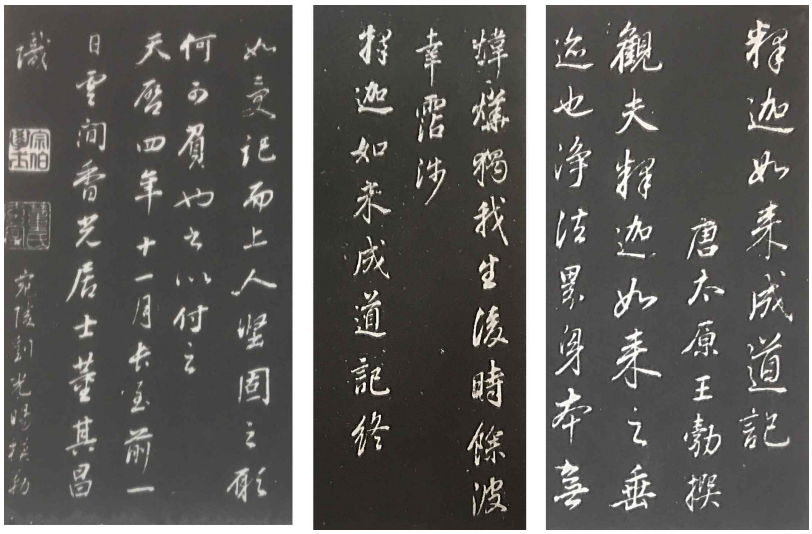
---

22) 傅山, 『霜紅龕集』, 1911년 丁氏刻本

23) 淸涼傳 2卷/唐 慧祥 撰, 廣淸涼傳 3卷/宋 延一 撰, 續淸涼傳 2卷/張商英 撰

같은 내용을 새긴 음각의 비석 중에는 송대 1067-1068년 사이 李恂의 글씨, 鄭愔惠가 篆額을 써서 湖州의 飛英寺에 王昇가 세웠다는 기록이『吳興金石記』의 권7에 그 크기와 글자 수가 밝혀져 있다. 또 같은 책에는 1082년 7월에 智聰의 勸緣과 元耀가 본문과 題額의 글씨를 쓰고 徐稷이 글자를 새겨 같은 歸安縣 飛英寺 浴院에 成道記의 비를 세운 기록도 수록하고 있다. 이 두 비석의 크기는 같지만 행자수는 전자가 19행 41자, 후자는 34행 64자이며 후자는 道誠이 注로 다른 체제이다.

국내에 탁본으로 알려진 董其昌의 음각비는 萬曆 초에 개건된 明因寺의 賜額殿 뒤 우측에 天啓 4년(1624)에 세운 것으로 전체 12판을 남북의 벽에 6판씩 새긴 것이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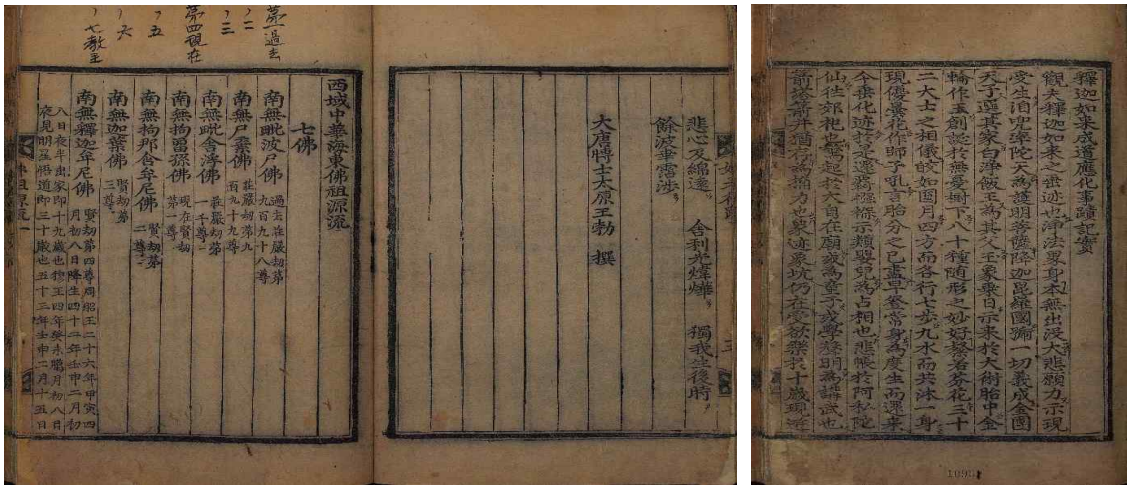
1. 釋迦如來成道記

국내에서 확인되는 판본으로는『釋迦如來成道記』란 제목의 음각 목판본으로 王勃(唐)이 짓고 명대의 董其昌이 쓴 것이다. 그 형태는 32折 1帖으로 크기는 32.0x16.5cm이다. 중국에서도 董其昌의 글씨의 탁본이 전래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 외에 1963년 서울의 法施舍에서 발간한 영인본도 같은 탁본의 계열로서 전체는 54면이다.

한편 국내의 간행본 중에서 이 부분을 수록한 책으로는 1764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의 본문을 시작하기 전의 권수 부분에 '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實'에서 釋迦如來成道記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24) 于敏中,『日下舊聞考』, 卷58 (北京 : 北京古籍出版社, 1983) 전8책
『(光緒)順天府志』. 卷16, 京師志 '明因寺', 光緒12年(1886)刻



1764년『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의 권수부분 王勃의 成道記 및 권수제

이 成道記 부분의 끝에 '銘'으로 五言의 40句가 나누어져 있고, 이어 저자사항으로 '大唐博士 太原王勃 撰'으로 기록하였다.

成道記가 수록된『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 獅巖 采永 編, 全州 : 松廣寺 觀音殿, 英祖 40(1764)

木板本 1책(107張), 33.8x21.5cm

四周雙邊, 半郭; 23.9x16.7cm, 有界, 10行 24字 註雙行, 內向2葉花紋魚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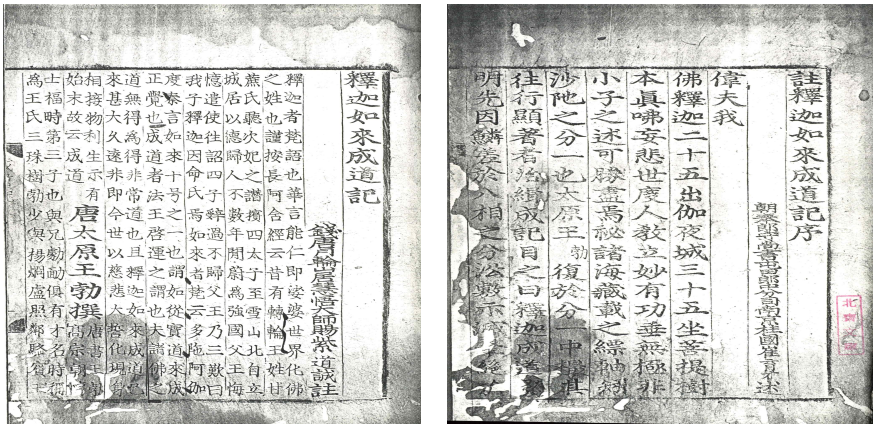
表題 : 佛祖源流

刊記 : 乾隆二十九年甲申(1764)夏刊板于全州終南山松廣寺觀音殿

跋 : 乾隆二十九年甲申(1764)...采永

卷首 : '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實'

2. 乙亥字本 『註釋迦如來成道記』



조선시대에 간행된 판본은 세조년간 중앙정부의 주도로 찍은 금속활자 을해자 인본이 확인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지방의 사찰에서 목판본으로 간행 판본이 있다.

을해자 판본은 道誠의 주석본으로 현재 부산의 仙光寺와 단양의 救仁寺 소장에 소장되어 있으며, 선광사본은 2011년에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08호로, 구인사본[25]은 2004년에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59호로 지정되어 있고 개인소장본도 확인된다.

책에는 印記나 跋文 등 인출 시기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다만 지질과 판식의 형태, 글자의 마모 등 인출 상태를 고려할 때 세조 연간인 15세기 판본으로 추정된다.

책의 형태는 서문 2장, 본문 39장이며 乙亥字의 중자와 소자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다만 서문과 본문을 쓴 崔育才와 道誠의 저자 신분 등 관련 사항 부분은 목판에 작은 글자를 사용하여 새긴 후 활자와 함께 조판한 것이다.

版式을 살펴보면, 匡郭은 四周單邊에 半郭의 크기는 21.6×14.4㎝이다. 界線이 있으며, 본문 은 9행 17자, 註는 雙行으로 배열되어 있다. 版心은 上下內向黑魚尾이며 版心題는 '成道記'이다. 표제는 없고 卷首題는 '釋迦如來成道記', 卷末題는 '夾註成道記'이다.

권수에는 서문을 쓴 '朝奉郎 守尙書屯田郎中 分司南京柱國 崔育才 述'이라는 기록과 함께1034년(景祐 元年)에 지은 序題인 「註釋迦如來成道記序」가 있다. 서문의 내용은 고려 판본과 같으나 시작부분에서 고려본이 '偉夫 / 我佛釋迦...'로 改行을 하여 부처를 높이고 있으나 乙亥字版은 '偉夫我 / 佛釋迦...'로 改行의 위치가 바뀌었다. 일반적인 문장내의 존숭 형식의 경우로 볼 때 조선의 을해자본에서의 형식이 더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또 권수제면 두 번째 줄에는 '錢唐月輪居慧悟大師賜紫道誠註'라는 註釋者 기록이 있다. 이 형식 역시 고려본에서는 崔育才의 序가 끝나고 바로 찬자인 道誠의 기록을 제시하고 卷首題에 이어서 주석이 시작되는 것과 형식적으로 다르다. 이를 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본 을해자본
[序題] 註釋迦如來成道記序 좌동
[序者] 朝奉郎守尙書屯田郎中分司南京柱國 崔育才述좌동
[序初] 偉夫 / 我佛釋迦...偉夫我 / 佛釋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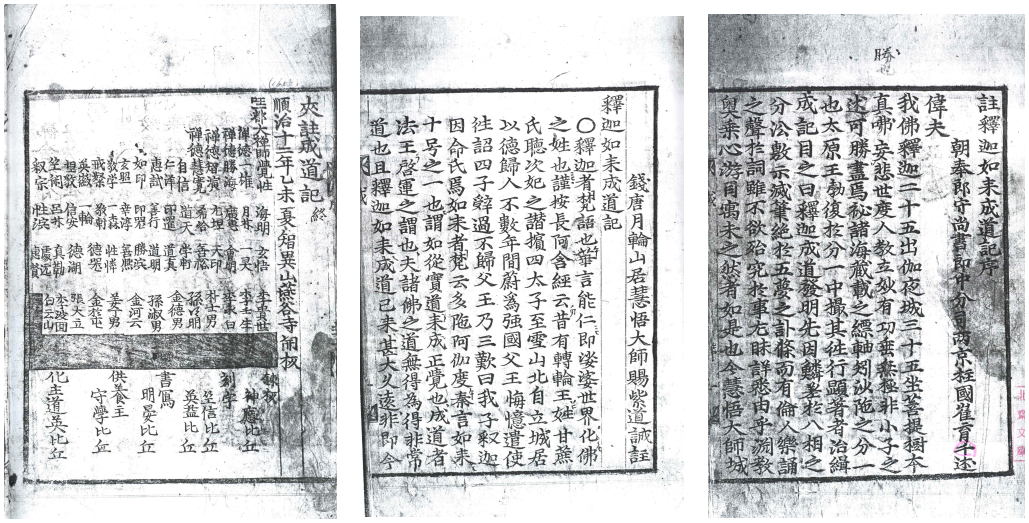
25) 김영덕 등편,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Ⅱ (청주 : 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2017), pp. 642-643.

[序末] 時大宋景祐元年仲春旣望序 좌동
[註者] 錢唐月輪居慧悟大師賜紫道誠註 [書名] 釋迦如來成道記
[書名] 釋迦如來成道記 [註者] 錢唐月輪居慧悟大師賜紫道誠註
[주석 내용] [주석 내용]

이러한 차이로 보면 조선에서 다시 重刊하고자 할 때 고려 판본에 대한 형식적 보완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판본인 分司大藏都監版은 '重彫'라는 표현으로 유추한다면 이미 이전의 底本이 중국본인지 이전의 고려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底本의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을해자판도 분사대장도감판과 같이 항목마다의 大文과 註釋文이 계속 연결된 형식으로 책의 전체 분량은 줄어들지만 검색의 가독상 편리하지는 않다. 조선 17세기에 새로 중간된 판본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개선하여 大文을 제시하고 주석문은 한 칸을 내려 쓰는 방식으로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3. 1655년 목판본 『註釋迦如來成道記』



이 판본의 전래본은 국내 일부 기관 소장처에서 확인이 된다.

판종은 목판본이며 孝宗 6年(1655)에 지리산의 燕谷寺에서 重刊되었으며 앞의 두 판본과 비교할 때 본문의 대문과 주석문을 단차를 두어 구분한 점이 다르다. 또 대문의 경우 앞의 을해자 판본이 항목별로 끊은 것에 비하여 여기서는 문장별로 구분한 관계로

문장상의 연결 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항목별로 끊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주석 부분에서는 圓點을 문장의 마지막 좌측에 새겨두어 구분하였다.

책의 전체적인 형태사항은 다음과 같다.

註釋迦如來成道記 / 王勃(唐) 撰 ; 道誠(唐) 註. 智異山 : 燕谷寺, 孝宗 6年(1655)
木板本, 1책(58장), 27.2x18.5cm
四周單邊, 半郭; 19.9x14.9cm. 間混有界, 11行 19-20字, 內向1-2葉花紋魚尾
刊記: '順治十二年乙未(1655)夏 智異山 燕谷寺開板'
註釋迦如來成道記序 : 朝奉郎 守尙書郎中 分司兩京柱國 崔育千 述 / 偉夫 我佛釋迦 ...
時大宋 景祐元年(1034)仲春旣望序
卷末題 : '夾註成道記'
版心題 : '成'
刊行秩 ; 國一都大禪師 覺性, 禪德 一雄 등, 李貴世, 李壬生 일반인 시주자 13명 등
鍊板 神應, 刻字 笠信, 英益, 書寫 明晏, 供養主 守學, 化主 道英 등
邊欄外 施主者名 : 第31-32張: 盧氏守眞靈駕, 第48, 50-52張: 金河云保体

이 燕谷寺는 신라 경덕왕때 緣起祖師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지고 이 책이 간행되기 전인 仁祖 5年(1627) 서산대사의 제자인 逍遙大師 太能(1562-1649)이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였고 말년에 머물렀던 곳이다.

이 책의 권말에 나타난 刊行秩에서 당시의 國一都大禪師이던 覺性을 비롯한 여러 寺中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다.

책의 편찬 형식으로 볼 때 이 시기에 중간된 宗密疏인 大乘起信論疏 역시 세조때 初鑄甲寅字로 찍은 판본이 을해자판본과 大文과 註釋文의 연결 형식이 유사하며 17세기 重刊할 때 이 成道記 주석본과 같은 체제로 항목별로 改行을 한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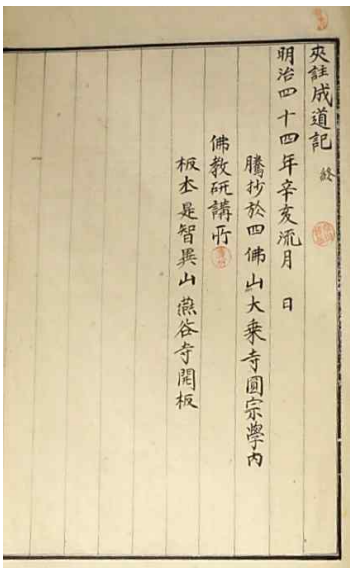
4. 필사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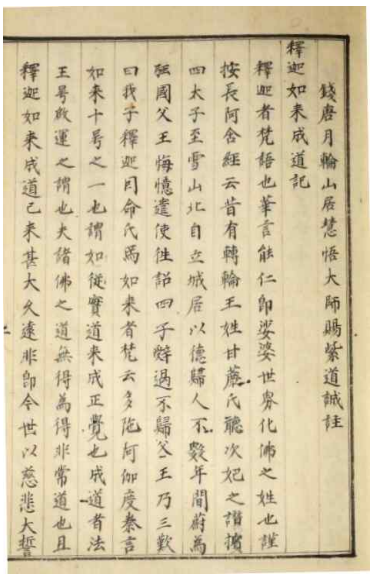
이 책을 필사한 자료로는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2건[26]이 소장되어 있으며 책의 장수(57-58장)와 11행 행수도 燕谷寺 간행의 목판본 유사하다. 그밖에 송광사 성보박물관에는 '釋迦如來成道記'라는 제목의 'G-3-17' 1책도 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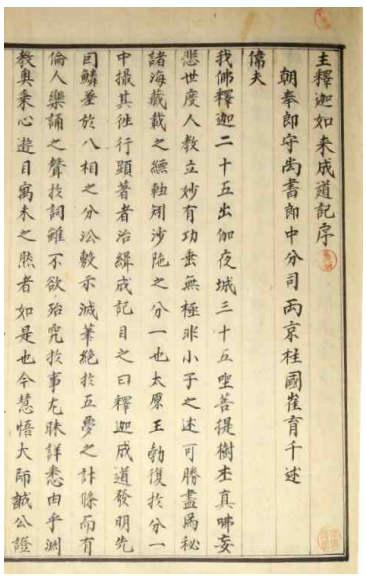
한편 圓覺寺 소장본으로 1909년 범어사에서 필사된 『釋迦如來成道記』에는 '釋迦如來成道記: 8張 / 釋迦牟尼佛行狀: 23張 / 孔子行狀: 1.5張 / 老子行狀: 1.5張 / 八萬四千塵勞說: 24張 / 圖像: 3張 / 施主秩: 1張), 圖像 / 科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 끝의 筆寫記는 '己酉(1909)秋七月東萊 梵魚寺淸豊講堂 初月大和尙法下同居錄'이며 필사본의 釋迦如來成道記: 8張의 끝에 '夾註成道記終'의 기록이 있다.

내용 중 '八萬四千塵勞說'은 '三圓相說, 三分半不性佛說, 四法界說, 四德說, 酬引業酬滿業說' 등 다수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冊末에 기록된 동거록은 초월대화상(1878-1944)이 1909년 가을 범어사 강당에서 수학하던 스님들의 명단과 출가본사 기록한 것으로 명단은 花嚴. 圓覺. 般若. 楞嚴. 四集으로 班을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의 필사본은 표지에 '能人成道記'의 표제가 있고 서문에 崔育千이라 쓰고 있지만 권수의 체제는 고려판본과 유사하다. 본문의 내용 전개는 燕谷寺版과 같지만 판식은 10행 22자이다. 권말의 筆寫記는 '明治四十四年 辛亥流月日 / 謄抄於四佛山 大乘寺 圓宗學內 / 佛教研講所 / 板本是智異山 燕谷寺開板'이라 하여 1911년 경상도 문경의 대승사에서 연곡사 목판본을 필사한 것이라고 밝혀 두었다.


夾註成道記 終
明治四十四年辛亥流月 日
謄抄於四佛山大乘寺圓宗學內
佛教研講所
板本是智異山燕谷寺開板


錢唐月輪山居慧悟大師賜紫道誠注
釋迦如來成道記
釋迦者梵語也華言能仁即娑婆世界化佛之姓也諱
按長阿含經云昔有轉輪王姓甘蔗氏號次妃之諱摘
四太子至雪山北自立城居以德歸人不數年間蔚為
弧國父王悔憶遣使往詔四子辭遇不歸父王乃三數
曰我子釋迦只命氏焉如來者梵云多陀阿伽度泰言
如來十号之一也謂如從實道來成正覺也成道者法
王号啟運之謂也大儒佛之道無得為得非常道也且
釋迦如來成道已來甚大久遠非即今世以慈悲大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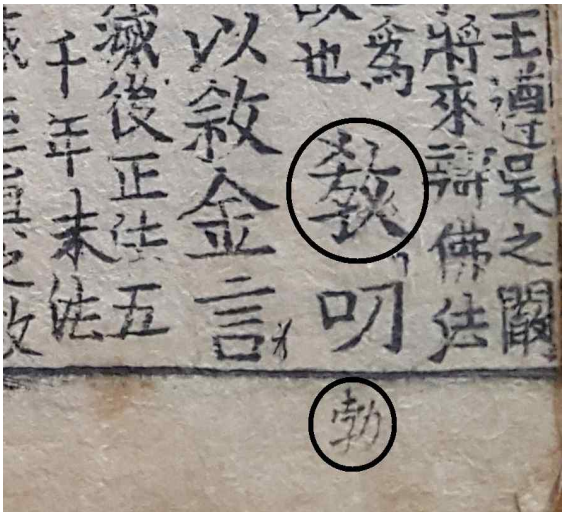

主釋迦如來成道記序
朝奉郎守尙書郎中分司西京柱國崔育千述
佛夫
我佛釋迦二十五出伽夜城三十五坐菩提樹主真啡妄
愍世度人教立妙有功盡無極非小子之述可勝盡焉秘
緒海藏載之纖細剛涉陀之分一也大原王勅復於分一
中撮其往行題著者治辟成記目之曰釋迦成道發明先
因鱗萃於八相之分沿教求滅筆絕於五夢之詳除而有
倫人樂誦之聲技詞雖不欲殆究於事危昧詳愍由乎測
教與衆心遊目寓未之照者如是也今慧悟大師誠公證

26)청구번호 F-1-23, F-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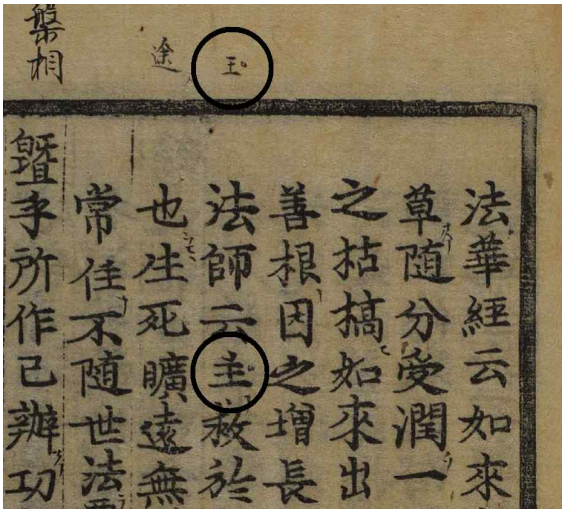
Ⅵ. 版本別 校勘

지금까지 알려진 주석본 3종에 대하여 본문을 교감하여 보면 글자 자형의 유사성으로 인한 誤字의 발생과 異體字에 대한 부분이 많고 일부 脫字가 확인된다. 전체적인 완성도의 측면으로 볼 때 을해자 판본에서는 두 판본에서 나타나는 오류 부분이 모두 바르게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차이나 유형의 원인을 밝히자면 각 판본의 底本과의 계통 관계가 밝혀져야 하지만 이 부분은 중국의 판본이나 다른 異本을 대조한 후에야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고려 分司大藏都監 판본과 연곡사 판본을 대상으로 글자의 대교만을 제시한다. 특히 고려본에서는 교정부분에 'ㅅ'과 같은 기호를 해당 글자의 우측 하단에 기입하고 상하의 빈 여백에 수정 글자를 기록하였다.



분사대장도감판 42장 뒷면



연곡사 판 34장 앞면

1) 연곡: 제8장앞 8행 : '捉之嬰前 以乳養之 ...' 誤字 교정 '提'
고려: 제7장뒤 5행 : 상동
2) 연곡: 제9장앞 3행 : '其聲明論釋[詰]訓 天竺 ...' 誤字 교정 '詰'
고려: 제8장앞 5행 : '其聲明論釋[詰]訓 天竺 ...'
3) 연곡: 제13장앞 2행: '將衰服以[貿]皮衣 ...' 이체자 주석 '俗貿也'
고려: 제11장앞 3행; 상동

4) 연곡: 제14장앞 4행: '日惟食一麻一[麦/麥]以此自試 ...' 이체자 교정 '麥'
'[後/亻변]悟此非眞修 ...' 誤字 교정 '後'
고려: 제11장뒤 7행: '日惟食一麻一[麦]以此自試 ...'
'[後]悟此非眞修 ...'

5) 연곡: 제20행뒤 5행: '皆勸請人也 [墮]宜說者方便之義也' 誤字 교정 '隨'
고려: 제16장뒤 7행: '皆勸請人也 [隨]宜說者方便之義也'

6) 연곡: 제25장앞 5행: '同日終命生忉[利]天尸林者 ....'
고려: 제30장앞 5행: '同日終命生忉[林]天尸林者 ....' 誤字 교정 '利'

7) 연곡: 제25장앞 7행: '我今手中葉...如來手中[ ]少不足言 ...'脫字 교정 '葉'
고려: 제20장앞 7행: 상동

8) 연곡: 제25장앞 8행: '我所覺[子]一切諸法 ...' 誤字 교정 '了'
고려: 제20장앞 7행: '我所覺[了]一切諸法 ...'

9) 연곡: 제27장앞 7행: '我[富]賣須達喜曰 ...' 誤字 교정 '當'
고려: 제21장뒤 7행: '我[當]賣須達喜曰 ...'

10) 연곡: 제27장뒤 10행 : '[]下方禪波羅蜜多 礼上方般若波羅蜜多 ...' 脫字 교정 '礼'
고려: 제22장뒤 1행: 상동

11) 연곡; 제29장앞 1행: '法[花]經三變土[田]十方嚴淨...' 誤字 교정 '曰'
3행; '無量佛土入一佛土淨[復]現穢穢[復]現淨' 묵서 교정 '覆'
고려: 제23장앞 5행: '法[華]經三變土[田]十方嚴淨...'
7행: '無量佛土入一佛土淨[復]現穢穢[復]現淨'

12) 연곡: 제33장뒤 1행; '壽命長短三一切世界淸[深]心 ...' 묵서 교정 '淨'
고려: 제26장뒤 7행: 상동

13) 연곡: 제34장앞 5행: '梁僧亮法師云 [主]救於國 親護於家...' 묵서 교정 '王'
고려: 제27장뒤 4행: 상동

14) 연곡: 제39장앞 1행; '合則成[入]高五丈 ...' 誤字 교정 '八'
고려: 제31장앞 4행: '合則成[八]高五丈 ...'

15) 연곡: 제40장앞 6행; '...誹斥深處何補[元]其罪本...' 誤字 교정 '无'
고려: 제39장앞 5행; 상동

16) 연곡: 제40장뒤 10행 ; '[余]時如來金棺自開 ...' 誤字 교정 '尒'
고려: 제32장뒤 4행: '[尒]時如來金棺自開 ...'

17) 연곡: 제49장뒤 7행; '有大自在天[廟/ 广+苗] 鑄金...' 誤字 수정 '庙'
고려: 제39장뒤 2행; 상동
18) 연곡: 제49장앞 1행; '小師始宗有[親]造五百部論[朋]小斥大天竺...'
고려: 제39장앞 1행; '小師始宗有[部]造五百部論[朋]小斥大天竺...' 중 '朋'은 교정표시 '明'
19) 연곡: 제51장뒤 8행: '馬鳴菩[薩] ...' 誤字 수정 '薩'
고려: 제41장앞 4행; '馬鳴菩[薩] ...'
20) 연곡: 제52장뒤 9행; '太史蘇由奏[照]王曰 ...' 誤字 수정 '昭'
고려: 제42장앞 2행; '太史蘇由奏[昭]王曰 ...'
21) 연곡: 제53장뒤 7행; '[勃]叨生季獲奉眞譚 ... 而不逢玉相'
고려: 제42장뒤 2행; '[教]叨生季獲奉眞譚 ... 而不逢玉相' 欄下 誤字 수정 '勃'
22) 연곡: 제56장뒤 6행: '... 摩訶迦葉爲作依[上]' 誤字 교정 '止'
고려; 제45장앞 4행; '... 摩訶迦葉爲作依[止]'

Ⅶ.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고려 시대 판본으로 처음 발견된『註釋迦如來成道記』에 대하여 서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이 판본은 권말에 기록된 分司大藏都監의 간행기록에 의하여 그간 선행연구가 많았던 分司大藏都監 간행의 補遺版 범주에 추가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판본은 고려시대 分司大藏都監에서 판각하여 인출된 책으로 권수제 부분이『釋迦如來成道記』이나 서문의 제목인『註釋迦如來成道記』과 권말제인 '夾註成道記'로 미루어『註釋迦如來成道記』를 서명으로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이 책의 간행시기는 '癸丑歲分司大藏都監重彫'에 의하여 대장경 판각이 끝난 이후에 해당하는 1253년이며 인쇄상태와 지질 등으로 인출의 시기는 고려 14세기로 추정되며 본문에 필사된 구결은 조선 초기의 구결로 판단된다. 또 간기 끝의 '重彫'라는 용어에 의하여 이미 유통하던 판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釋迦如來成道記는 당대 王勃이 찬술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송대의 道誠이 주석

을 단 것이연구 대상본이다. 道誠은 釋氏要覽과 같은 저술에서 불교는 물론 유교에 이르기까지 깊고 많은 지식을 동원하여 책을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책의 주석에서도 여러 경전의 인용문과 유가의 문헌들도 인용되고 있다. 인용된 경전 가장 많은 것은 주제와 관련된 涅槃經이며 本行經, 法華經, 華嚴經과 같은 차례이나 석가의 탄생으로부터 성도, 입멸, 열반을 다룬 여러 경전과 論, 疏 등을인용하였다.

넷째, 현존하는 판본은 王勃의 『釋迦如來成道記』는 명대의 董其昌이 쓴 탁본이 전하고, 같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은 1764년의 목판본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의 시작 부분인 '釋迦如來成道應化事蹟記實'에 원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내용에 주석을 단 『註釋迦如來成道記』는 여기서 소개한 分司大藏都監 판본과 세조때 을해자로 찍은 판본, 1655년 燕谷寺에서 覺性 등에 의하여 내용 서술의 형식을 바꾸어 목판으로 重刊한 판본이 있다.

다섯째, 교감의 영역에 있어서 서문을 쓴 崔育才는 崔育千, 崔育材, 崔育林 등 여러 표기가 각종 서지에서 나타나지만 을해자본에서는 '才', 1655년 燕谷寺版에서 '才'를 '千'으로 잘못 판독한 이후는 오류가 계속되었다. 책의 내용에 대한 교감에 있어서 分司大藏都監版에는 간혹 誤字가 있어 후대인이 교정사항을 여백에 묵서로 표시하였다. 내용상 판본중 가장 정확한 것은 을해자판이며 1655년의 목판본에도 일부 誤字가 확인된다.

이상과 같은 서지적인 검토를 통하여 『註釋迦如來成道記』의 성립과 고려시대 分司大藏都監 판본의 특징과 저자인 王勃, 주석자인 道誠과 같은 저자 사항의 분석을 비롯하여 이후 간행된 판본의 본문 교감 등을 통하여 내용 및 판본간의 우열을 검토할 수 있었다. 이 판본 이후 고려에서 조선 전기까지 釋迦如來行蹟頌 등 이어지는 관련 찬술서의 성립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나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참고문헌〉

金光植. 高麗武人政權과 佛教界. 서울: 민족사, 1995.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81.
김봉윤. 팔만대장경과 남해. 남해: 고려대장경 판각성지보존회, 2019.
金潤坤. 高麗大藏經彫成名錄集. 대구: 영남대출판부, 2001.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2002.
金潤坤. “高麗大藏經의 彫成機構와 刻手의 性分.”『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 卷上; 碧史李佑成教授停年退職紀念論叢』, 1990.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文炯萬. 高麗諸司都監各色研究. 서울: 제일문화사, 1986.
文暻鉉. “高麗大藏經 雕造의 史的 考察.”『佛教와 歷史; 李箕永博士古稀紀念論叢』, 1991.
박상진. 다시보는 팔만대장경판 이야기. 서울: 운송신문사, 1999.
새얼문화재단. 고려 팔만대장경과 강화도. 인천: 새얼문화재단, 2001.
오윤희. 대장경. 서울: 불광출판사, 2011.
李炳熙. 高麗後期 寺院經濟 研究. 경인문화사, 2008.
張愛順 외. 高麗大藏經의 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6.
蔡尙植. 高麗後期佛教史研究. 서울: 일조각, 1991.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汎友社, 1990.
崔然柱. 高麗大藏經 研究. 경인문화사, 2006.
崔永好. 江華京板 高麗大藏經의 판각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8.
韓基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서울: 민족사, 1998.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서울: 일조각, 1986.

〈論文〉

강순애. “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의 分析을 통해 본 初雕 및 再雕大藏經의 變容에 관한 研 究.” 한국비블리아학회지 7(1994).
金聖洙. “고려대장경 조조의 동기 및 배경에 관한 연구.” 불교연구 32집(2010).
金甲周. “高麗 大藏都監 研究.” 영취불교문화원. 不聞聞 창간호(1990).
文明大. “大藏都監禪源寺址의 發見과 高麗大藏經板의 由來.” 韓國學報 3(1976).
閔永珪. “一然重編 曹洞五位 重印序.” 學林 6(1984).
배상현. “고려시기 晉州牧 지역의 寺院과 佛典의 조성.” 大丘史學 72(2003).
常盤大定. “大藏經彫印攷.” 哲學雜誌 (1913).
서수생. “八萬大藏經板 研究.” 韓國學報 l9(1974).

오용섭. “八萬大藏經의 造成과 江華.” 인천학연구 제1집(2004).
兪瑩淑. “崔氏武人政權과 曹溪宗.” 白山學報 33(1986).
柳富鉉. “高麗大藏經의 底本과 板刻에 관한 硏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2001).
정병삼. “고려 재조대장경 외장의 사상사적 의의.” 불교학연구 제27집(2010).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下).” 東洋學報 14-1(1924).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に關する 一二の補正.” 東洋學報 14-4(1924).
崔然柱. “江華京板 高麗大藏經 각성인과 도감의 운영형태.” 역사와 경계 57(2005).
2(1995).

[제1발표 논평]

「분사대장도감 간행 『註釋迦如來成道記』의 서지적 연구」를 읽고

이 종 수
순천대학교

고려시대 불서는 매우 희귀하여 간혹 발견되면 서지학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가 되는 분사대장도감 간행 『주석가여래성도기』 역시 근래 발견되어 국가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처음 학계에서 그 가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고려시대 불교서지학의 권위자이신 남권희 교수님(이하, 발표자)께서 새로 발견된 『주석가여래성도기』를 연구하여 발표하는 것은 어떤 연구자가 연구하여 발표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서지학에 문외한인 제가 남권희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한국불교사를 전공하는 제가 이렇게 논평을 맡은 이유는 제가 처음 이 불서의 존재를 알게 되어 국가문화재등록을 추진하였고, 더불어 서지학적 연구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발표문을 보면서 제가 궁금해하던 내용이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오늘 처음 이 불서의 연구에 접하신 분들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써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여 논평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발표자께서는 책의 서명을 정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서문에서 사용된 '주석가여래성도기'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명표기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권속장에서는 '석가여래성도기주'라는 서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명에서 차이가 있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발표자께서는 이 책이 고려시대 인출본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고려시대 종이에 고려시대 먹으로 인출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점에서 고려시대 종이이고 먹인지를 추정하시는 것인지, 그 근거들을 소개해주신다면 서지학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해인사 장경각에 있는 15종의 보판 중 조선전기 1503년(발표문의 표에 근거함)에 중간된 『예념미타도량참법』을 제외한 14종은 고려시대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판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글에서 "조선시대 말기에 雕成하여 끼워 넣으면서"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대장목록에 실리지 않은 판본 가운데 현존하는 15종의 목판(보판) 외에 印本으로만 현존하는 불서로 『종문척영집』, 『중첨족본선원청규』, 『천태삼대부보주』, 『대전화상주심부』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에서는 1287년에 판각된 『일승법계도원통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혹시 빠뜨리신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제외하신 건지요?

5. 발표자께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석가여래성도기』로는 중국에서 1624년에 세운 동기창 글씨의 '석가여래성도기' 음각비를 탁본한 것과 1764년에 완주 송광사에서 간행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의 권수 부분에 있는 '석가여래성도기응화사적기실'의 내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동기창 글씨의 탁본은 언제쯤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으로 보는 건지요? 1764년 간행된 '석가여래성도기응화사적기실'의 내용은 어떤 책을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6. 지금까지 발견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석가여래성도기』에 앞서 『주석가여래성도기』가 먼저 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고려시대 분사대장도장 간행본을 제외하더라도 조선 세조대에 금속활자 을해자로 간행한 인본이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또 1655년 구례 연곡사에서 간행한 판본도 현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하는 분사대장도감 간행본 『주석가여래성도기』의 소장인에 '鄭秉憲印'이 있습니다. 정병헌은 일제강점기에 만해 한용운의 권유로 한때 3.1운동에 가담했던 적이 있었으나, 1930년대 구례 화엄사 주지에 임명된 이후 친일 행적을 보인 승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분사대장도감본이 연곡사

판본의 저본으로써 보관되어 오다가, 일제강점기 연곡사의 본사가 화엄사이므로 그 화엄사의 주지였던 정병헌 스님이 소장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상에서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제가 궁금하거나 처음 발표문을 읽는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연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대체로 '八相成道'로 표현하고, 그와 관련된 불화도 조선시대 이래 다수 존재합니다. 현재와 같은 통일된 명칭의 八相 용어는 1447년에 편찬된 「釋譜詳節序」에 처음 보입니다. 미술사학계에서는 이러한 팔상의 명칭이 『주석가여래성도기』에서 유래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하는 분사대장도감본 『주석가여래성도기』는 미술사학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이번의 연구가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발표]

고려후기 및 조선전기 불전류(佛傳類)의 간행과 유통

박 용 진
능인대학원대학교

Ⅰ. 머리말

佛傳은 석가모니의 생애를 다룬 전기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불교 경전이 한역되었고, 2세기 무렵부터 석가의 전기인 불전이 한역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불교사에 있어 고구려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전의 수용도 이루어졌겠지만, 교조인 석가모니에 대한 이해, 즉 석가관을 밝혀 줄 수 있는 불전의 간행이나 유통은 잘 찾아지지 않고, 대장경의 입장 불전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이후 한반도에서의 첫 불전 편찬은 고려후기 운묵의 『석가여래행적송』이며, 조선초기에는 세조에 의해 편찬된 『석보상절』이 최초의 한글 불전으로 평가되어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불전 이외에 불교의 교조인 석가에 대한 생애와 사적을 알 수 있는 불전류의 간행과 유통에 대해 고려후기와 조선전기에 간행되어 유통된 사례를 검토코자 한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불전과 관련하여 불교학계에서는 고려후기에 간행된 『석가여래행적송』의 편찬 배경과 사상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되었고, 조선전기의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에 대해서는 불전의 내용이나 특징 등이 지적되어왔다.[1] 한편

1) 『석가여래행적송』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 전반은 박소영, 『高麗後期 雲默의 『釋迦如來行蹟頌』 硏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운묵의 사상에 대해서는 이영자, 「무기(無寄)의 천태사상 : 석가여래행적송을 중심으로」, 『한꾸불교학』3, 한국불교학회, 1977 ; 이병욱, 「운묵의 『釋迦如來行蹟頌』에 나타난 회통사상연구」, 『불교학연구』1, 불교학연구회, 2000이 있다. 기타

국문학계를 중심으로는 불전 문학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2] 특히, 동아시아 불전문학의 수용과 전개 양상에 대해 『석가여래십지수행기』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3]

한편, 불교사의 연구는 당시의 정치나 사회와의 관련 하에 불전 관련 내용이 간략히 언급되기도 하였고,[4] 서지학에서는 고려의 『석가여래행적송』이 정리되었고, 특히 조선초기 『석보상절』, 『월인석보』의 저본 등의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졌다.[5] 최근의 불전연구로는, 동아시아한문문화권의 불전문학에 대해 중국, 한반도, 일본, 베트남을 포함한 전승과 변용에 대해 4개국 심포지움이 개최된 바 있고, 그 결과는 단행본으로 정리되었고,[6]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에서도 불전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7]

위와 같이 다수의 연구성과가 있지만, 한국불교사에 있어 불전의 편찬과 간행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소 부족하고, 특히 불전 이외 간접기나 略記로 석가의 생애를 다룬 불전류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서는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려후기 및 조선초기의 불전류의 간행과 유통을 중심으로 검토코자 한다.

『행적송』과 『석보상절』이나 『불조통기』 등 불전의 내용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 『석보상절』에 대해서는 오지연, 「『석보상절』에 대한 불교학적 연구와 그 과제」, 『불교학보』77, 동국대불교문화연구원, 2016.

2)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의 최근 연구동향은 김기종, 「『석보상절』의 底本과 그 성격」, 『남도문화연구』38, 순천대남도문화연구소, 2019.

3) 『석가여래십지수행기』에 대한 연구동향은 박병동, 『석가여래십지수행기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4) 채상식, 『고려후기불교사연구』, 일조각, 1996 ; 최병헌, 「《月印釋譜》 編纂의 佛敎史的 意義」, 『진단학보』75, 진단학회, 1993 등이 있다.

5)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 『朝鮮前期 記錄文化 硏究 : 목판인쇄 기록물』, 청주고인쇄박물관, 2013 ; 강순애, 「『월인석보』의 저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22, 서지학회, 2001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6) 小峯和明編, 『東アジアの仏伝文学』, 勉誠出版, 2017. 小峯의 불전문학에 대한 정의는 석가의 생애의 전기나 설화,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석가의 전세의 설화인 본생담을 비롯, 아난이나 목련 등의 불제자담, 열반후의 사리담, 나아가 그 배경을 모방한 천축신화나 전생담들도 널리 대상으로 한다.

7) 동국대학교 불교사회문화연구원에서 불교의 전파경로와 붓다전기(佛傳)의 변용 양상; 붓다 전기의 한국적 형성화과정의 전 (前) 이해라는 주제로 2020년 11월 20일에 세미나가 있었다.

II. 고려후기 불전류(佛傳類)의 간행과 유통

1. 고려대장경과 고려敎藏 입장 佛傳類

고려시대의 불전은 전존 자료의 부족으로 분명치 않지만, 신라대 이래 수용된 대장경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漢譯 佛傳은 대략 17-18종으로, 여기에는 直接記, 즉 특히 석가의 생애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쓴 불전과 경부 또는 율부의 불서에서 다른 문제를 취급하는 가운데 석가의 생애가 삽입된 간접기로 구분할 수 있다.[8] 『고려대장경』에 입장된 직접기의 불전을 번역 연대순으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려대장경 입장의 한역 불전

경번	경 명	역 자	권수	비 고
K0765	수행본기경(修行本起經)	강맹상(康孟詳), 축대력(竺大力)	2권	197년
K0663	중본기경(中本起經) :원전무	담과(曇果), 강맹상(康孟詳)	2권	207년
K0775	佛說太子瑞應本起經	지겸(支謙)	2권	222-253년
K0468	이출보살본기경(異出菩薩本起經)	섭도진(聶道眞)	1권	약전
K0112	불설보요경(佛說普曜經)	축법호(竺法護)	8권	316년졸
K1009	불설십이유경(佛說十二遊經)	가류다가(迦留陀伽)	1권	약전
K0980	불소행찬(佛所行讚)	마명(馬鳴,찬), 담무참(曇無讖譯)	5권	찬송의 대표작
K0979	불본행경(佛本行經)	석보운(釋寶雲)	7권	450년 졸
K0777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	구나발다라(求那跋陀羅,)	4권	469년 졸
K0802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사나굴다(闍那堀多,)	60권	587-591년
K0111	방광대장엄경(方廣大莊嚴經)	지바가라(地婆訶羅,)	12권	688년 졸
K1172	불설중허마하제경(佛說衆許摩訶帝經)	법현(法賢)	13권	약전, 989년역

『수행본기경』은 석가의 성도(成道) 이전까지의 행적을 기술하였다. 『중본기경』은 성도 이후의 행적을 담고 있고, 제1 전법륜품(轉法輪品)으로부터 제15 불식마맥품(佛食馬麥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전 경전은 「본연경」, 「본기경」 등으로도 불리며, 석존의 과거세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 중심이다. 석존 전생담인 『태자모백경』 1권이 중국 불교 초기 안세고에 의해 역출되었고, 삼국시대에는 강승회에 의해 『육도집경』 8권이 역출되었다.

8) 立花俊道, 「漢譯諸佛傳と各語各國所傳の佛傳」,『佛教學の諸問題』, 岩波書店, 1937 ; 井上哲次郎, 『釈迦牟尼伝』, 文栄閣, 1911.

현존 경전 가운데 전생담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은 『中本起經』, 『佛說十二遊經』, 『불소행찬』, 『불본행경』 등을 들 수 있고, 모두 고려대장경에 입장되어 있다.[9)]

『불소행찬』은 불타의 일생을 서사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부처의 전체 전기로서의 특색을 갖는다. 내용은 석가계보, 부왕과 모후, 탄생, 궁중 생활, 출문유관, 출가, 고행, 항마, 성도, 초전법륜에서 입멸 등 전반에 걸쳐 서술하였다. 본서는 『불본행경』, 『佛本行集經』과 함께 석가의 전기를 전생애에 걸쳐 언급한 대표적인 불전에 해당한다.

『異出菩薩本起經』, 『佛說十二遊經』, 『佛說衆許摩訶帝經』은 석가의 전생, 석가족의 내력, 생애에서는 교화와 귀의까지를 기록하였고, 입멸은 서술하지 않은 일종의 약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불전의 일부를 기록한 것이라면 많지만, 대체로 그 전반에 걸쳐 있는 것을 연대순으로 들면, K0048 『혜상보살문대선권경(慧上菩薩問大善權經)』, K0896 『사분율(四分律)』, K0647 『불설장아함경(佛說長阿含經)』, K0895 『미사색부화혜오분율(彌沙塞部和醯五分律)』, K1390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파승사(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破僧事)』 등을 들 수 있다.[10)]

이상의 한역 불전과 함께 중국에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그 이해를 반영한 중국 찬술 불전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려대장경 입장 중국 찬술 불전류

경번	불전명	권수	편찬자	편찬시기	비고
K1080	理惑論	-	牟子	牟子 理惑論	『弘明集』권1
K1047	釋迦譜	5권	僧祐	502-518년	
K1049	釋迦氏譜	1권	道宣	665년	
K1050	經律異相	50	梁僧旻寶唱等集	508-517년	略記

위의 <표 2> 고려대장경에 입장된 중국 찬술 불전류는 대략 4종을 들 수 있다. 이들 4종은 730년 『개원석교록』 입장의 대장경에 포함되어 일찍이 신라에 수용되어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찬술 가운데 가장 이른 불전 약기는 『홍명집』의 「이혹론」이며

9) 釆睪晃, 「中国における仏伝受容」 『佛教学セミナ』101(日本 京都: 大谷大学佛教学会, 2015), pp.4-5.

10) 立花俊道, 「漢譯諸佛傳と各語各國所傳の佛傳」,『佛教學の諸問題』(日本 東京: 岩波書店, 1937), p.255.

앞부분에 간략한 불전이 수록되어있다. 『이혹론』에는 전생담이 일부 보이지만, 불전을 금생에 한해서 보는 태도는 중국에서 전세, 전생이라는 개념에 익숙치 않았던 때문으로 보인다.[11]

양대 승우가 편찬한 『석가보』는 석가의 전기를 제경에서 뽑아 서술하였고, 당대 도선의 『석가씨보』는 『석가보』에 의거 경전을 인용하여 간추리고 요약하여 2권으로 만든 것이다. 『경율이상』은 여러 불전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백과사전식으로 편집한 것이다. 이상의 대장경 입장 불전류가 고려시대에 단행경으로 간행되거나 유통된 사례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고려전기 고려교장에 입장된 중국 찬술 불전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고려교장 입장 중국 찬술 불전류

서명	찬자	편찬시기	내용	비고
釋迦牟尼降生禮讚文	仁岳述	송대	강생 예찬	교장총록
釋迦如來涅槃禮讚文	仁岳述	송대	열반 예찬	교장총록
釋氏會要	仁贊述	1011년 경	미상 / 不傳	교장총록
僧史略	贊寧	10세기	佛降生年代	교장총록

고려전기 『신편제종교장총록』(이하, 『교장총록』)에 수록된 불전류를 살펴보면, 仁贊의 『釋氏會要』, 贊寧의 『僧史略』, 仁岳의 『釋迦牟尼降生禮讚文』, 『釋迦如來涅槃禮讚文』를 들 수 있다. 이 역시 직접적인 불전은 아니지만 석가의 생애나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인악의 예찬문은 고려전기 대각국사 의천의 『교장총록』에 수록되어있어, 11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려에 수입되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 전본은 현재 일본의 미노부산문고 등에 있고, 국내 전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석씨회요』는 송대 인찬의 편찬서로 大中祥符 4년(1011) 11월에 益州太守 李士衡이 『석씨회요』 40권을 황제에게 상진한 것으로 미루어 1011년 무렵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12] 이 『석씨회요』는 『교장총록』에 입록된 점으로 미루어 고려전기에 전존하였고, 고

11) 釆睪晃, 앞의 논문, pp.11-12. 중국불교가 전한 시기 서역이나 인도에서는 불전에는 전생담이 붙은 것이었고, 전생담 쪽이 주체였다고 한다. 특히, 대승불교는 전생담을 토대로하여 보살사상을 현양하였지만 중국인의 불전수용은 그것과 달랐다고 한다. 중국인이 포착하는 석존의 생애는 이 세계에 사람으로서 태어난 것에서 시작하며, 대승불교의 사상기반의 하나인 본생담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을 특징이라 이해하였다.

려후기에는 무기가 『석가여래행적송』의 편찬시 인용하였지만, 그 이후 활용이나 현재 국내외 전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승사략』은 찬영이 999년경에 편찬하였고, 『교장총록』에 입록된 1090년 이전에 고려에 수용되었으며, 그 전본은 미상이다. 『승사략』은 대중상부 4년에 입장되었고, 숭령 4년(1105)에 재입장, 소흥 14년(1144)에는 法道에 의해 판각 유통되었다. 일본의 유통은 남송 간행본이 나고야 貞福寺 寶生院에 중요문화재로 소장되어 있고, 東寺에는 그에 의했다고 생각되는 겸창초기본(잔결)이 있고, 일본 간본에는 오산판(室町期), 慶安 4년(1647), 延寶 4년(1676), 연보 8년(1680), 명치 16년(1883) 등의 제본이 있다.[13)]

2. 고려후기 불전류의 편찬과 간행

고려후기에는 고려초조장이 조성되어 주요 사찰에 반사되어 유통되었고, 고려교장의 불전류 역시'有本見行錄'이었으므로 제한적이지만 유통되었을 것이다. 고려후기에 대장경이나 교장에 입장된 불전류의 단행경의 간행이나 유통은 기록에는 잘 찾아지지 않고, 새로운 불전류가 전래되거나 편찬되어 간행되었으며,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고려시대의 불전류의 간행과 유통

서명	찬자	편찬시기	佛傳 내용	비고
海東高僧傳	覺訓	1215년	도솔강림-불전결집	약기
釋迦如來成道記註	道誠註	1253년	성도기 및 주석	夾註成道記
大藏一覽集	陳實	13세기	석가여래 생애 및 행적	8品
釋迦如來行蹟頌	雲默	1328년	석가행적송 및 주석	
釋迦如来十地修行记	미상	1328년	석가불의 본기 및 행적	
祖堂集	文僜	952년	釋迦牟尼佛 생애 약기	약기
景德傳燈錄	도원	1004년	釋迦牟尼佛 생애 약기	약기
禪門拈頌集	慧諶	1243년	석가 생애 관련 古則	약기
禪門拈頌說話	覺雲	14세기	선문염송 고칙 주석	주석

위의 <표 4>와 같이 고려후기 불전류는 『해동고승전』, 13세기 분사대장도감에서 간행된 『석가여래성도기주』, 『대장일람집』, 14세기 고려말에 편찬된 『석가여래행적송』이

12) 『佛祖統紀』권44(『大正藏』49, p.404c).

13) 牧田諦亮, 「僧史略の世界」, 『印度学仏教学研究』3, 1953.9, pp.261-264.

있고, 선종의 등사에서 확인되는 불전의 약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해동고승전』

『해동고승전』은 고려후기 각훈이 1215년에 편찬한 해동 고승의 전기이다. 본서는「유통편」2권만 남아 있고, 권1 流通一之一은 석가의 생애, 佛教가 중국에 傳來한 記事와 年代, 順道와 亡名의 傳記 등, 권2는 流通 一之二 覺德 등의 傳記와 贊이 수록되어 있다. 석가의 생애에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論曰夫佛陀之為教也 性相常住 悲願洪深 窮三際 遍十方 雨露以潤之 雷霆以鼓之 不行而至 不疾而速 五目不能覩其容 四辯莫能談其狀 其體也無去無來 其用也有生有滅 故我釋迦如來 從兜率天 乘栴檀樓閣 入摩耶胎 以周昭王甲寅四月初八日 遂開右脇 生於淨飯王宮 其夜五色光氣入貫大微 通於西方 昭王問太史蘇由 曰 有大聖人 生於西方 問利害 曰 此時無他 一千年後 聲教被此土焉 始處宮中 亦同世俗 粤四十二年甲申四月八日 佛年三十踰城出家 遂坐樹成道 轉法利生 如優曇花時一現耳 初說華嚴 次說小乘 或般若 . 深密 或法華 . 涅槃 隨機普被 任器方圓 其猶一風而萬竅齊號 孤月而千江皆現 四十九年度脫群品 列子所謂西方有聖人者是也 是時文殊與目連為化人亦[1][這-言+赤]子震旦 佛年七十九 以穆王壬申二月十五日入滅於瓊林白虹十二道 連夜不滅 王問太史扈多 曰 西方大聖人方滅度耳 於是阿難等結集金言 具載貝牒 經律論戒定慧 爰方啟行 然雜華恒常之說 隱入于虬宮 邪宗蚖肆 異部蛙鳴 既而馬鳴屹起挺生 及陳那護法唱之和之 推邪現正 演義申宗 廣大悉備乎西域 將有待而東驅矣.[14]

위의 인용문에서 석가의 생애는 도솔천에서의 하강에서 입멸까지를 간략히 기술하였다. 본서의 인용과 관련하여 석가여래가 도솔천에서 栴檀樓閣을 타고 摩耶부인에 입태하는 기술, 昭王問太史蘇由, 王問太史扈多은『광홍명집』,『파사론』등에서 보인다. 본서는 김대문의『고승전』이후 일부이지만 전존하는 우리나라의 高僧傳으로는 가장 오래된 승사이다. 석가의 생애는 도솔천에서의 하생으로부터 입멸까지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고려후기 당대의 석가의 생애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본서는 1910년에 2권 영본의 필사본이 발견되었고, 유통본은 이를 대본으로 한 필사본이다.

14)『海東高僧傳』(『한불전』6, p.89b).

2) 대몽항쟁기 불전류의 간행 : 『석가여래성도기주』과 『대장일람집』

(1) 『釋迦如來成道記註』

『釋迦如來成道記註』(이하, 『성도기주』)는 王勃의 『釋迦如來成道記』에 송의 道誠이 주해한 것이다. 1253년 분사대장도감 간행의 『성도기주』의 서문에"註釋迦如來成道記序 奉郎守尙書郎中分司兩京柱國崔育千述 時大宋景祐元年(1034)仲春旣望序"이라 하여 1034년에 崔育千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협주성도기』 서문의 저자명 자획의 일부가 탈락되어 '崔育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인출되지 않았거나 저본의 결락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성의 『석씨요람』의 서문에는'功德主仙林住山壇主愚極 宣德郎守尙書屯田員外郎上輕車都尉 崔育材'가 기록되어있고,[15] 또한, 鎧菴 吳克己(1140-1215)의 『重刊刪定止觀序』에"朝奉郎尙書職方員外郎分司南京護軍崔(育材)捨俸金開版 二公乃中朝名賢 今刊仍舊存之示不忘本"이라 하여, 본서 『여래성도기주』의 서문의 찬자는 최육재임을 알 수 있고, 1034년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성의 생몰은 분명치 않고, 사전은 『佛祖統紀』卷44, 『咸淳臨安志』卷70, 『嘉靖浙江通志』卷68 등에서 알 수 있고, 그의 저술로는 『釋氏要覽』, 『釋迦如來成道記註』, 『尼蒙求』『(缺), 『釋氏須知』『(缺) 등이 확인된다. 도성이 『성도기주』를 편찬한 것은 天禧 3년(1019)에 『석씨요람』을 편찬할 정도로 전고에 밝았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성도기』는 석가여래의 팔상성도에 대해 서술하고, 입멸 후의 유법과 홍통을 언급하고, 마지막에'獨我生後時 餘波幸霑涉'라 하여, 말세에 태어나 자신이 금구를 직접 접하지 못한 한탄을 서술하였다. 도성의 『성도기주』는 『성도기』의 매 구절에 대해 경론을 인용하여 주해한 것으로, 특히 석가여래가 이 땅에 示生한 시종을 一兜率來儀相, 二嵐毗尼園降生相, 三四門遊觀相, 四逾城出家相, 五雪山示修道相, 六菩提樹下降魔成道相, 七鹿野苑轉法輪相, 八娑羅林下般涅槃相의 八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주요 인용 경전으로는, 초기 한역 불전으로는 『태자서응본기경』, 『보요경』, 『과거현재인과경』, 『본행경』 등이 다수 인용되었고, 기타 『비바사론』, 『열반경』, 『화엄경』, 『구사론』 등의 경론을 인용하여 축자적으로 명료하게 주해한 것이다.

15) 『釋氏要覽』권상(『大正藏』54, p.257b). 『대정장』의 오류이다. 일본 간본 등의 원문은 崔育材이다.

『성도기주』는 1034년 무렵 간행되어 그 이후 고려에 전래되었겠지만 그 시기는 미상이다. 국내외 전본으로 최고본은 고려후기 1253년에 분사도감에서 간행한 중간본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고려대장경의 조성이 완료되는 1251년 이후에 해당하고, 대장도감이나 분사도감의 여력을 이용한 다수의 불전이 간행되는 시기였다. 또한 대장경 간행에 여러 종파가 참여하는 한편 자종의 불서를 간행하였다. 『성도기주』의 간행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를 밝힐 단서는 없지만, 천태종이나 화엄종 등 교종계에 의해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고려시대의 전승은 잘 찾아지지 않고, 조선시대의 간행과 유통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2) 『大藏一覽集』

『대장일람집』은 일종의 유서로 불전의 직접기는 아니지만 석가여래의 생애를 기록한 간접기가 포함되어 있다. 이 불전의 간접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지만 고려후기의 불서의 편찬에 끼친 영향은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불전과 관련하여 『대장일람집』의 편찬과 내용, 그 유통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장일람집』은 寧德(복건성 영덕현)의 大隱居士 陳實이 1157년 무렵 편찬한 유서로, 대장경의 요문을 추출하여 8부문 60품으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국내 전본에는 서문이 없지만, 일본 전본 寬永 19년(1642) 경도 寺町의 西田勝兵衛 간행본에는 권수에 趙令衿에 의한 소흥 27년(1157)의 서문과 진실의 자서가 존재하고, 본서가 이 즈음의 성립인 것을 알 수 있다.[16] 진실의 『대장일람집』 서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陳實序「大隱居士 陳實 此一大事 本無字脚 俯徇中下之機 苟向無說中 說教海瀰漫 區區者望涯 而返千流萬泒 得入者又莫窮源 源既未窮 那求至寶 不免作箇方便佛事 揔教人人有分去 纂五千餘卷 約爲十卷 攝八萬餘門 歸以八問 其一 著如來之行狀 作夫牓樣 其二 辨教門之究竟 復指知歸 其三 則反觀自己 出入胞胎 其四 爲有我 故有善因 有悪緣 其五 有報應 故有天堂有地獄 其六 欲求解脫 當假三乘 其七 行滿功圓 直登正覺 其八 立教傳宗 始終一貫 凡六十品 一擒一縱 皆有所自 且如布施品 或施多而福少 或施少

16) 최영호, 海印寺 所藏本 『大藏一覽集』 刻成時期의 재검토와 판각의 현실관, 한국중세사연구6, 한국중세사학회, 1999, pp.214-246.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일본 간본의 송대 서문을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편찬과 간행시기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었다.

而福多 由心輕重 固不在物 苟不見能施人 及無所施物 亦無受施者 了了施無所施 是名眞施 如持戒品 或上品而降爲下 或下品而升爲上 由心優劣 固不在法 且凡夫犯而不戒 聲聞戒而不犯 菩薩犯而爲戒 了了無戒可戒 是名眞戒 窮微攝要 品品皆然 譬彼百川朝宗于海 試一討而源窮 一覽而藏畢 到這裏 忽遭一口吸盡底時 始信我黃面老子說中無說」

위의 서문은 불법의 근원을 궁구하기 위한 방편이나 불사가 필요하고, 이에 교설 5천여권을 요약하여 10권으로 하고, 팔만여의 법문을 총섭하여 8문으로 귀결시킨 뜻을 서술하였다. 또한, 제1문은 여래의 행장을 저술하여 본보기(牓樣)를 만든 것으로, 석가여래의 생애와 행적을 8품으로 나누어 상세히 서술하였다. 『대장일람집』의 체재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대장일람집』의 구성과 내용

권차	분문	표목	품명	내용
第一卷	제1문	首標大覺先容 俯為眾生作則	先王品, 因地品, 示生品, 出家品, 成道品, 度生品, 入滅品, 常住品	석가의 생애
	제2문	次辯教門究竟 庶使學者知歸	原道品, 教興品, 優劣品, 究竟品, 釋疑品, 證驗品	교문의 분변
	제3문	果於此道可入 豈離自己本來	托胎品, 五蘊品, 煩惱品	무아
第二卷	제4문	良由善惡二途 故使升沉六道	三歸品, 十善品, 布施品	선악과 육도
第三卷			持戒品, 忍辱品, 精進品, 禪定品, 般若品	
第四卷			方便品, 造像品, 事親品, 雜緣品, 十惡品	
第五卷			懺悔品, 臨終品, 報應品	
第六卷	제5문	天堂延以少歡 地獄待其劇苦	賢劫品, 諸天品, 四洲品, 有情品, 地獄品, 三災品, 劫量品, 大千品	천당과 지옥
第七卷	제6문	欲超三界輪迴 是假三乘修證	四眾品, 入道品, 聲聞品, 緣覺品, 菩薩品, 等覺品	수증
第八卷	제7문	功成果登正覺 相好妙用神通	法身品, 相好品, 神足品, 十號品	불과
第九卷	제8문	四十九年苦口 末後一笑收功	教相品, 持誦品, 唐梵品	교상과 선종 계보
第十卷			宗眼品, 正傳品, 傍出品, 分派品, 散聖品, 流通品	

『대장일람집』은 권1 제1문의 석가모니 생애, 권10의 제8문의 선종 계보와 인물을 서술하였고, 기타는 모두 불교 교리를 분류하여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대장일람

집』은 석가의 생애, 교리와 교설, 선종의 전등으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제8문에 종안, 정전, 방출, 분파 등의 품을 나누어 선종 계보를 서술하고 있는데, 그 구성은 『경덕전등록』의 권1-27까지의 그것과 같고,[17] 『통록촬요』가 한국의 찬술이 아닌 진실의 이 『대장일람집』 권10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졌다.[18]

본고에서 검토하는 불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第一門에서 8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를 다시 인용서와 함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대장일람집』 第一門의 불전 내용

품명	소표목	내용	인용서
先王品3	混沌天地以開端 乃祖始王之統御	天地開端 祖始王	석가보, 기세인본경
因地品3	遠窮三大僧祇因 最後一生居補處	一生補處	비바사론, 인과경, 석가보
示生品1	爰從兜率降來儀 慶誕毗嵐示色相	兜率降來/毗嵐示相	보요경, 석가보
出家品1	四門遊觀忽警悟 中夜逾城驟出家	四門遊觀/逾城出家	석가보
成道品1	六載雪山修苦行 一朝道樹悟明星	雪山修行/道悟明星	석가보
度生品1	初自鹿苑轉法輪 後止娑羅遺後囑	轉法輪	열반경
入滅品1	能事既畢入泥洹舍利以留為佛事	泥洹 / 舍利以留	泥洹經
常住品1	幻來生亦何嘗生 幻去滅亦何嘗滅	幻來 幻去	宗門統要

위의 제1문은'首標大覺先容 俯為眾生作則'의 표목으로, 처음에 대각의 선용을 표하여 중생을 위하여 본보기로 삼는다고 하였다. 석가의 생애는 先王品, 因地品, 示生品, 出家品, 成道品, 度生品, 入滅品, 常住品의 8품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인용서는 『석가보』, 『기세인본경』, 『비바사론』, 『인과경』, 『열반경』, 『종문촬요』 등이며, 『석가보』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선종의 『종문촬요』를 인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 8품의 아래에는 소표제가 있어 서술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니, 팔상성도와 관련하여 내용을 비교하면, 선왕품과 인지품을 두어 석가의 본생담을 제시한 점과 상주품을 두어 열반 이후를 다룬 점이 차이가 있다. 상주품의 인용서 『종문통요』는 제4문에서 4회, 제8문에서 17회나 인용되어, 전체 22회에 달하고 있어, 선종서의 인용이 주목되며, 제8문의 종안품 이하 선종 계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17) 椎名宏雄, 『禪學典籍叢刊』권6상, 臨川書店, 2001, 434쪽에 『대장일람집』의 해제 참조.

18) 김호귀, 「傳燈史書로서 통록촬요의 구조와 그 의의 고찰」, 『大覺思想』22, 2014.12, p.383.

『대장일람집』의 전승과 유통을 살펴보면, 본서의 대장경 입장은 남송『사계장』에 입장되었으며, 명대 이후에는 상당히 유행하여 많은 개판이 이루어졌다.『사계장』은『資福藏』이라고도 하며,『안길주사계법보자복선사대장경목록』에 11권본이 입장되어 있고, 千字文 함차는 魏(574)-困(575)에 해당한다. 고려대장경의 재조장 본장에는 입장되지 않았고, 이른바 보유판으로 해인사 경판에 포함되어있다. 사계장의 다음은『嘉興藏』속장으로 입장되었으며,「明陳實編 姚舜漁重輯」의 명대 중간본에 해당한다. 근대 활자본으로는『대정장』의 장외『소화법보총목록』권3의 pp.1253-1415에 고려대장경 보유판을 저본으로 근대활자본으로 번각하여 수록하였다. 최근『中華藏』은『大正藏』본을 저본으로 수록하여 현행하고 있다.[19]

국내외 최고의 텍스트는 해인사장판 즉, 고려재조대장경의 보유판이라 생각되지만 이 텍스트에는 서문과 발문은 없으며, 송대 간기만 있다.[20] 보물 제1335호인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은 영본이며, 13세기 대장도감에서 활동한 각수 존식 등이 확인되므로, 재조장 보유판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고려말의 불전류 간행 :『釋迦如來行蹟頌』과『釋迦如來十地修行記』

①『釋迦如來行蹟頌』

『석가여래행적송』(이하,『행적송』)은 無寄가 1328년(충숙왕 15년)에 撰集한 석가여래에 대한 찬송이자 전기에 해당하며, 776구의 頌文 가운데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주를 달았다. 본서에는 李叔琪의 서문과 무기의 자서가 있어『행적송』의 찬술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편찬 배경이나 목적을 많이 언급하였지만, 불전이라는 관점에서 서문을 내용을 통하여 편찬 의도를 정리하기로 한다.

> ①이미 자신의 성姓을 버리고 석존의 제자가 되었다면, 본사本師이신 여래께서 세상에 나와 교화하신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반드시 먼저 자세히 살펴본 연후라야 석존의 제자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21]

19) 寧德優婆塞陳實謹編,『大藏一覽集』(『中華藏』56, p.251).

20)『大藏一覽集』(『고려대장경』k.1504, "門目總類末: 建安劉五三郎書局刻梓以傳."

21) 李叔琪,「釋迦如來行蹟頌序」,『釋迦如來行蹟頌』(『한불전』권9, p.484b), "既捨爾姓而投釋種 本師

②석존의 제자가 되어 본사의 성명과 탄생하고 입멸하신 연월, 수명의 길고 짧음, 말씀하신 가르침의 방편과 진실(權實)이나 드러남과 은밀함(顯密)을 알지 못하면, 이는 '승려 모습을 한 속인'이라 할 것이니, 이보다 더한 불순함이 무엇이겠는가. 불효하고 불순한 허물을 지으면, 무간지옥의 끝없는 고통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와 교화하신 자취, 남기신 법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인연, 세계가 이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텅 비는 일, 오랜 시간의 길고 짧음의 이유가 경론에 두루 있으므로 거울삼을 수 있으나, 우리들처럼 새로 배우는 사미의 무리는 자세히 찾을 수 없어 모르는 것이 많다.佛出興行化之蹟 遺法普被益物之緣 世界成住壞空之事 劫波大小長短之由 布在經論 可以鏡焉 그러므로 이제 어리석은 내가 天台四教儀에 의지하고, 여러 경론 가운데 두드러진 말씀을 모으고, 여러 전기에 나타난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모두 776구의 게송으로 편집하였다. 구句에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곧 본문으로 구句 아래에 주석을 달아 보는 이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가까이 보여 멀리 보게 하려는 것이며, 간략한 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알게 하려는 것이다.[22]

③불교 전적과 조사의 문장을 찾아 본사本師 석가모니의 행적송과 아울러 주석을 찬술하였으며, 이에 두 권을 만들어 사미들을 계도하게 되니, 이로움이 매우 넓을 것이다. 時天歷三年庚午二月八日 萬德山白蓮社沙門 豈跋[23]

위의 인용문의 이숙기와 무기의 서문, 그리고 백련사 사문 기(豈)의 발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불문의 새로 들어온 석존의 제자들은 본사인 여래가 세상에 나와 교화한 일대사 인연을 상세히 알아야 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무기는 특히 본서의 편찬과 관련하여 ①釋子는 본사의 성명과 탄생하고 입멸한 연월, 수명의 길고 짧음, 말씀하신 가르침의 방편과 진실(權實)이나 드러남과 은밀함(顯密)을 알아야 하며, ②석가가 세상에 나와 교화한 자취, 남긴 법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인연, 세계가 이

如來出興行化一大事因 必先翻縷 然後方名為釋子."

22) 無寄, 「釋迦如來行蹟頌**竝序**」, 『釋迦如來行蹟頌』(『한불전』권9, pp.484c-485b), "其為釋子 若未了本師之氏字誕滅年月壽命遠近所說諸教權實顯密 則此稱僧貝之俗歟 不順孰過于茲 當知不孝不順之僇 未免無間無斷之苦 夫吾佛出興行化之蹟 遺法普被 益物之緣 世界成住壞空之事 劫波大小長短之由 布在經論 可以鏡焉 然我等新學沙彌之輩 不能廣尋 昧者多矣 故今不肖依天台四教儀文 又摭諸經論中所著之言 及詳眾傳記上所彰之說 編以成頌 凡七百七十六句 而又句中義未顯者 仍以本文註于句下 使見者易曉焉 是則視近見遠 據略知廣矣."

23) 白蓮社沙門豈, 「跋文」, 『釋迦如來行蹟頌』(『한불전』권9, p.540a).

루어지고 머물고, 무너지고 텅 비는 일, 오랜 시간의 길고 짧음의 이유 등의 내용은 경론에 갖추어 있지만 새로 배우는 사미들은 널리 찾을 수 없어 모르는 것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무기는 『천태사교의』를 중심으로 여러 경론과 전기의 자료를 모아 776구의 송을 지어 불문에 들어 새로 배우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행적송』의 구성과 내용은 석가여래 名義, 1-128구 제불경계 時空, 129-144구 출세지와 석가계보, 145-152구 도솔강래와 탁태, 153-192구 탄생과 성장, 193-220구 四門遊觀 및 출가의, 221-264구 출가 수행, 265-268구 성도, 269-460구 전법륜과 도생, 461-540구 입멸, 사리분탑, 541-548구 결집과 불법 유통, 549-696구 중국 유통, 697-840구 勸誡이다.

『행적송』은 다수의 문헌을 인용하여 편찬되었고, 그 서명이 제시되었는데, 이영자는 『행적송』의 인용 서명을 검토하여, 그 전거는 원시경전, 부파불교 논소, 대승경론, 중국 찬술, 기타 약 90여 종에 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24] 박소영은 『행적송』의 인용전거를 상세히 정리하였다. 다만, 그는 무기가 인용 전거를 제시하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지만, 일부에 그쳤고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긴 바 있다.[25] 『행적송』의 연구는 무기의 사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되었지만, 오히려 인용서 등 문헌학적 방면의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이 가운데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대장일람』의 인용 사례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행적송』: 立世論云 月之圓缺者 若月隨日後行 日光翳月 漸漸掩覆 至十五日 覆月都盡 若日在月前行 日日開淨 亦復如是 至十五日具足圓滿(云云)

②『입세론』: 佛說立世阿毘曇論卷第六 若日隨月後行 日光照月光 月光麁故被照生影 此月影還自翳月 是故見月後分不圓 以是事故漸漸掩覆 至十五日 覆月都盡 隨後行時 是名黑半 若日在月前行 日日開淨 亦復如是 至十五日具足圓滿 在前行時是名白半[0197b16]

③『대장일람』: 立世論云 若日隨月後行 日光翳月 漸漸掩覆 至十五日 覆月都盡 是名黑半 若日在月前行 日日開淨 亦復如是 至十五日 具足圓滿 是

24) 이영자, 「무기의 천태사상-석가여래행적송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3, 한국불교학회, 1977.

25) 박소영, 「天台思想史에 있어서 『釋迦如來行蹟頌』의 文獻學的 意義」, 『天台學硏究』10, 2007, pp. 265-266.

名白半

위의 인용문은 『행적송』의 『입세론』 인용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대장일람집』의 내용을 인용하였거나, 또 다른 자료의 재인용으로 추정되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행적송』의 인용서는 서명이 제시된 것 이외에, 본문의 인용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인용서의 서명, 종류, 총수, 서명의 표시방식과 형식 특징 등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행적송』의 인용서와 현재 전본 내용의 축조 대교를 통해 이동을 발견하고, 언어학 및 교감, 집일, 훈고 등 문헌학 방면의 가치를 밝혀야 한다.

『행적송』의 간행과 유통을 살펴보면, 고려후기 1330년 이후의 간행과 유통은 잘 찾아지지 않고, 조선초기 간경도감의 목활자본이 간행되는 등 조선전기의 사례는 다수 확인되며 후술한다.

② 『석가여래십지수행기』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이하, 『십지수행기』)는 元 泰定 5년(1328)에 편찬되었으며, 석가여래의 본기에서 열반까지의 전반을 제1지(第一地)에서 제10지까지 구분하여 편찬한 일종의 불전에 해당한다. 제8지는 선혜동자(善惠)가 연등불에게 성불하여 석가모니가 된다는 기별, 제9지는 석가여래가 과거 贍波國의 태자였던 전생담이다. 이어 석가여래의 생애를 상세히 기술한 제10지에서는 도솔천에서 강림하는 것으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에 해당한다.

본서의 편찬 시기와 관련하여, 국문학계에서는 고려 충숙왕 15년(1328)에 형성된 한국 최고의 서사 문학집으로 평가하였고, 최근의 본서 해제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려 편찬설이 이어지고 있다.[26] 편찬 시기와 관련하여 최초의 편찬은 태정(泰定) 5년(1328, 충숙왕 15)으로 추정되고, 이후 명대에 1448년에 少室山人이'芟削繁詞, 從新校正'하였다고 하여, 산삭과 교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448년 명 정통본 계통의 본문 「第七地」에는'高麗國'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少室山人이 산번하기 이전의 원본에'고려국'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연구에는 고려대 소장본의 「第七地」의 저본은 원대의 1328년 이전에 형태를 갖춰 유전하였고, 원대에 민간 講唱文本에 의거 「第七地」로 개편

26) 史在東, 「佛敎系 敍事文學의 硏究-『釋迦如來十地修行記』를 중심으로-」, 『語文硏究』12, 1983 이래 박병동, 『<釋迦如來十地修行記> 硏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등이 있고, 尹淳一 등, 中國語文論譯叢刊 第45輯, 중국어문논역학회, 2019.07, pp.207-232.

되어, 한반도에 전입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27] 편찬과 관련하여'高麗國'이 표현된 사유 등과 함께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수행기』의 유통본은 명대 少室山人의 刪繁과 校正을 거쳐, 明 正统 13년(1448)에 伊府에서 간행한 것이다. 伊府는 朱元璋의 아들을 伊王으로 봉하면서 伊王府를 두었고, 이왕부의 간칭이 이부이다. 제2대 朱顒炔(1424-1462)는 1448년에 이부의 환관 기구인'承奉司'소속의 普秀에게 명하여 간행과 유통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28] 결국, 국내 현전 정통 13년(1448)의 서문이 있는 유통본은 모두 명본의 계통에 해당된다.

국내 전본으로는 1660년 충주 월악산 덕주사 개판본인 강전섭 소장본, 고려대도서관[29], 연세대도서관 소장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화상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데, 표제는『釋迦如來十地修行經』이며, 同治 12년(1873) 布門이 쓴 등재본으로 간행한 판본이다. 본서는 청대에 간행된 때문인지 서문의 마지막 부분인「大明正統戊辰端陽 伊府用梓命工刊行」이 생략되어 있다. 표제는『釋迦如來十地錄』, 序題는「釋迦如來十地修行序」, 본문, 권미제는『釋迦如來十地修經』, 이어『佛說天地八陽神呪經』이 수록되어있고, 발문이나 간기가 없어 간행자나 시기는 미상이다. 기타 필사본으로는 덕주사본을 저본으로 한 동국대 도서관 소장의『逐機別談』[30] 등이 있고, 1936년에 안진호가 목차 등을 보충하여, 국역하여 신연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4) 선종 등사류 및 어록류의 불전 :『祖堂集』,『선문염송』과『염송설화』,『경덕전등록』

(1) 선문염송집(1244-48))과 염송설화(14세기)

고려후기 수선사 지눌의 법사인 혜심(1178-1234)이 편집한 선문 공안의 일대집성서이

27) 王晶波, 앞의 논문, p.85.

28) 王晶波,「从敦煌本『佛说孝顺子修行成佛经』到『金牛宝卷』」,『敦煌学辑刊』, 兰州大学 敦煌学研究所, 2017, pp.82-85 ; 최연식,「조선후기 佛教小話集의 수용과 유통」,『불교학보』80, pp.120-122에서는 1328년에 처음 정리된 이 책의 모본 혹은 조술본도 원대 인물에 의한 편찬으로 본다.

29) 고려대 소장본의 서명은『釋迦佛十地修行』이고, 발문은 없으며, 형태사항은 四周單邊 半郭 20.8 ×15.2cm, 有界, 10行20字, 上下黑口, 內向黑-3葉花紋魚尾 ; 27.0 ×18.3 cm이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s://library.korea.ac.kr(2021.2.6.).

30) 표제는『逐機別談』, 서명은『釋迦如來行錄』, 조선말기 필사본, 不分卷1冊(41張): 無界, 半葉 10行24字, 註雙行; 26.3 x 18.1 cm. 9지 이하 누락, 무기의『행적송』추가.

다. 내용은 당대를 주로 북송말까지 선문조사에 관한 고칙 공안과, 그러한 것에 대한 후인의 염제송고 등의 착어류를 모아, 이러한 공안의 조사들을 석존 이하 선문 전등의 차례에 따라 배열한 것이다. 『선문염송집』이 석가의 생애를 기록한 직접기는 아니다. 본서는 석가의 도솔래강에서부터 입멸까지가 제1칙에서 제37칙까지 다음과 같은 고칙 아래 조사들의 공안이 기술되어있다.

大覺世尊釋迦文佛
古則(一)世尊未離兜率 已降王宮 未出母胎 度人已畢
古則(二)世尊初生下時 周行七步 目顧四方 一手指天 一手指地云 天上天下唯我獨尊
古則(三)世尊見明星悟道偈云因星見悟 悟非星 不逐於物不是無情
古則(四)世尊在多子塔前 爲人天說 (중략)
古則(三七)世尊在婆羅雙樹 入般涅槃已經七日 大迦葉後至 遶棺三匝世尊槨示雙趺 迦葉作禮 大衆罔措

이상과 같은 『선문염송』의 고칙이 석가의 생애의 서술은 아니지만, 석가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 『선문염송집』에 대한 해설서로는 고려후기에 편찬된 구곡각운의 『선문염송설화』(이하, 『염송설화』)가 있다. 이 『염송설화』 역시 석가의 생애에 대한 서술은 아니지만 각운이 제서를 인용하여 주석한 것으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31] 『염송설화』는 『선문염송집』의 매칙마다 2字句의 핵심어 1개를 견출하여 해설하였다.

『선문염송집』은 정안의 발문에 의거 1243년(고종 30)을 전후하여 간행되었고, 1568년 평안도 順安 法弘山 法興寺 留板, 1636년 전라도 寶城 天鳳山 大原寺 개간이 있고, 『염송설화』는 1685년(숙종 11) 평안도 安州 古廟佛堂, 1707년(숙종 33) 전라도 興陽 楞伽寺의 간행본이 확인된다. 기타 1889년(고종 26)에는 楊州 天磨山 奉印寺 淨圖庵에서 『會編禪門拈頌輯說話』가 開刊되었다.

(2) 『조당집』과 『경덕전등록』

『조당집』은 남당 보대 10년(952)에 편찬된 것으로, 오대의 전란으로 중국에서는 일찍

31) 조명제, 「 禪門拈頌說話 의 인용 문헌과 사상적 특징」, 『역사와 경계』108, 2018, pp.67-104.

이 산일되었지만, 고려에 일찍이 전래되어 1245년에 분사도감에서 雕造되었고, 목판은 해인사에 전존한다.

『조당집』은 현존 최고의 등록체 등사이다. 선종의 역대 조사의 전승 세계와 선승들이 참선 혹은 학인을 接引할때의 대화나 開示에 해당하는 機緣 語句를 기재한 저작으로, 전등록, 등록, 등사라 간칭한다. 등록은 승전과 어록의 사이의 일종의 문체이고, 사적 가운데 譜錄에 상당한다.[32] 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석가의 생평을 서술하는 한편 그 중간 부분은 어록이 포함되어 있지만, 역시 간략하다. 『조당집』의 서술은 七佛, 三十三祖(서천 28조, 동토 6조가 연계, 서천 28조와 동토 초조는 동일인), 초조 아래 방출, 4조, 5조, 6조 이하의 계보를 기록하였다. 찬자는 七佛의 매 1佛과 33조의 매 1祖를 각기 선종 전법 세차 중의 1대로 하였기 때문에, 제33조 혜능에 이르러서는 40대를 이룬다. 청원행사계의 선종 48대 전법 세차를 구성하였다. 석가불의 생애에 대한 기술은 『조당집』 권1에 수록되어있고, 권1과 권2는 칠불과 33조가 되며, 제7불로서의 賢劫中第四佛 釋迦牟尼佛의 본생에서부터 서술하여 도솔래의, 탄생 출가, 성도와 열반 등이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景德傳燈錄』은 북송 1004년 법안종 천태덕소의 사법인 도원이 편찬한 것으로 선종의 전등사로서 다수 유통되었다. 『전등록』은 선종의 세차와 원류를 아는 가장 완비된 기재로 평가된다. 세계는 칠불에서 남악회양 제9세와 靑原行思 법사 제11세(고려 慧洪 포함)까지이다. 석가에 대해서는 권1에서 칠불의 처음인 毘婆尸佛에서 시작하여 釋迦牟尼佛까지 수록되어 있고, 석가의 생애에 대해 출생에서부터 열반까지의 일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앞선 『조당집』 보다 소략하고, 석가의 전기를 아는 데는 부족하지만, 선종계에서의 석가의 생애를 아는 전기로서 활용되었을 법하다.

고려시대의 유통으로는 지원 28년(1291년), 洪武 5년(1372) 覺雲 중간, 嘉靖 15년(1536) 지리산 신흥사, 隆慶 2년(1568) 법흥산 법흥사, 萬曆 원년(1573) 평안도 순안 法弘山 法興寺 留板, 만력 42년(1614) 은진 佛明山 雙溪寺 개판, 강희 21년(1682) 평안도 묘향산 보현사 개판, 강희 26년(1687) 묘향산 보현 개판이 확인된다. 강희본의 권10 권말에는 청허휴정의 사손인 화엄종주라 칭한 월저도안(1638-1715)의 이름이 확인된다. 특히 위의 제본에는 고려 왕건의 「建」字 피휘가 있어 고려 전본 계통임을 알 수 있다.[33]

---

32) 陳士强, 『大藏經總目提要·文史藏』, 上海古籍出版社, 2008, pp.497-498.

33) 椎名宏雄, 「朝鮮版 『景德傳燈錄』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教學部論文集』7, 1976, p.188.

Ⅲ. 조선전기 불전류(佛傳類)의 간행과 유통

조선초기의 불전은 고려후기의 불전이 유통되고 전승되는 가운데, 한글의 창제와 함께 최초의 국문 불전인 『석보상절』이 편찬, 간행되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전기의 불전과 그에 준하는 석가의 생애를 다룬 간접기나 약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간행과 유통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조선전기 佛傳類의 간행 및 유통

서명	간행 및 유통	시기	비고
金字釋迦譜	세종 하사	1424년경	
增修釋迦譜	김수온 찬	1446년	
釋譜詳節	수양대군 찬	1447년	24건
月印千江	세종 찬	1447년	
釋迦如來成道記	세조 유통	1459년-1467년	대마도, 유구 하사
大藏一覽集	인수왕비 유통	1472년 인출	40건
佛祖歷代通載	인수왕비 유통	1472년 인출	30건
景德傳燈錄	인수왕비 유통	1472년 인출	10건
景德傳燈錄	지리산 신흥사 刊	1536년	
釋譜詳節	인수대비 유통	1495(연산1년) 印	선종영가집 발문
月印釋譜	世祖 편찬 및 刊	1459년	25건
月印釋譜	광흥사 刊	1542년	
月印釋譜	구악산 무량굴 刊	1559년(명종14)	
景德傳燈錄	순안 법흥사 刊	1568	**선문염송집**
月印釋譜	豊基 小伯山 池叱方寺 刊	1568년	**권2**
月印釋譜	忠淸道 寒山地 恩津 双溪寺 유치	1569년	**권21**
釋迦如來行蹟頌	頭流山 臣興寺 刊	1572년	**1571년 의천서**
景德傳燈錄	순안 법흥사 刊	1573년?	
大藏一覽集	담양 용천사 刊	1573년	**造像品**
佛祖歷代通載	능성 쌍계사 刊	1576년	

위의 <표 7> 조선전기 佛傳類의 간행과 유통을 분류하면, 사전부 佛傳類의 증수석가보, 석보상절, 월인천강, 월인석보, 석가여래성도기, 석가여래행적송, 사전부 불교사의 석

씨통감, 불조역대통재, 사전부 禪宗傳의 조당집, 경덕전등록, 연등회요, 사휘부의 대장일람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분류에 따라 조선전기 불전의 간행과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간행과 유통

조선전기 불전류 간행에 있어 한글의 창제와 함께 편찬되는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가 한국불교사에 있어 자국의 언어로 편찬되고 간행된 불전이라는 점에 있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판 불전의 간행은 『석보상절』의 편찬과 간행을 전후한 불전류의 흐름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조선초기의 불전은 고려대장경의 입장 경전은 기본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행경의 간행이나 유통은 확인되지 않고, 중국 찬술 불전의 유통이 확인된다. 우선 이른 시기의 불전 유통의 기록으로는 조선 세종6년(1424) 금자 사경의 『석가보』, 세종28년(1446)의 김수온의 『증수석가보』가 주목된다.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 ①安臣等奉回答日本國王書乃行 其書曰:(중략) 不腆信物 金字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一部 金字阿彌陁經一部 金字釋迦譜一部 靑紙金字單本華嚴經一部 大藏經一部[34]
>
> ②命副司直金守溫 增修釋迦譜(『세종실록』권114, 세종28년 12월 2일 條, 1446년)

위의 인용문 ①은 세종 6년(1424년) 2월에 일본 회례사 判繕工監事 朴安臣 등에게 보내는 회례품으로, 『密敎大藏』, 『注華嚴經板』 등과 함께 금자 『釋迦譜』 1부가 있었다. 이 금자 『석가보』가 세종 당대에 사성되었는지, 혹은 금자 대장경의 사성본 가운데 일부였는지 분명치 않다. 세종 28년(1446) 3월에는 소헌황후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수양군에게 천도를 위하여 『석가보』를 편찬토록 하였다. 이러한 세종의 『석가보』에 대한 관심은 김수온에게 『석가보』를 중수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28년(1446) 12월 2일에

34) 『세종실록』권23 세종 6년 2월 7일 條, "安臣等奉回答日本國王書乃行, 其書曰 (중략) 不腆信物: 『金字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一部,『金字阿彌陁經』一部,『金字釋迦譜』一部,靑紙金字單本『華嚴經』一部,『大藏經』一部."

증수한 『석가보』는 현전하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수양대군이 『석보상절』을 편찬할 때 참고하였을 것이다. 이 『석보상절』은 편찬과 국역을 거쳐 세종 29년(1447) 7월을 전후하여 간행되었다. 이어, 세종은 수양군이 편찬한 『석보상절』을 보고 『월인천강』을 지었다. 이후, 세조는 간경도감을 중심으로 불경의 언해나 교장류의 불서를 중수하거나 간행하였는데, 세조 5년(1459)에는 『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이하에서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인용서를 통하여 당대 불전류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석보상절』의 인용 불전을 살펴보면, 『석가보』와 『석가씨보』를 중심으로 경전과 중국의 찬술서가 활용되었는데,[35] 이를 중심으로 불전 관련 인용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표와 같다.

<표 8>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불전 관련 인용서[36]

권차	주요내용	석보상절 인용서	비고
권1,2	본기와 탄생	인과경, 파사론(周書異記), 석씨통감	월석
권3	출생 - 수행	성도기주, 불본행집경, 석씨통감, 석가여래행적송	
권4	樹下降魔, 성도	阿育王傳, 성도기주, 불조통기, 불본행집경	월석
권5	전법륜	중본기경, 佛祖統紀, 성도기주, 불본행집경	
권6	전법륜	석씨통감, 미증유인연경, 성도기주, 聯燈會要[37]	
권7	難陀의 出家 등	觀佛三昧海經	월석
권8	십육관경 설법 등	佛說觀無量壽經, 安樂國太子經	월석
권9	약사경	약사경	
권10	五百群賊의 敎化 등	大方便佛報恩經, 大雲輪請雨經	월석
권11	석가의 사은과 자비행	대방편불보은경	
권12	大迦葉의 正法 傳持 등	大方便佛報恩經, 불조통기	월석
권13,19,20,21	영산회 설법 등	묘법연화경	

35) 『석보상절』의 저본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다수이지만, 김기종, 「『석보상절』의 底本과 그 성격」, 『남도문화연구』38, 2019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고, 김성주, 「석보상절 권제3의 저경과 번역」, 『국어사연구』18, 2014 ; 김미경, 「석보상절 권3의 불경 발췌 양상 연구」, 『한국문화』81,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에서 『석보상절』권3의 인용 불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석가여래행적송』, 『석씨통감』, 『법화경문구』, 『대당서역기』, 『대지도론』 등을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

36) 김기종, 「『석보상절』의 底本과 그 성격」, 『남도문화연구』38, 남도문화연구소, 2019를 참고하여 정리 ; 강순애, 『 『월인석보 』 의 저본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22, 서지학회, 2001.

권14-18	법화경 설법	묘법연화경	
권22	석존의 법 부촉	法苑珠林, 目連經	월석
권23	열반, 사리분탑	열반경, 법원주림(파사론)	
권24	법장결집, 사리탑공양	성도기주	

위의 <표 8>의 『석보상절』의 인용서를 살펴보면, 『석가보』와 『석가씨보』를 근간으로 하면서 다양한 불전을 인용하고 있다. 『석가보』는 김수온의 증수 『석가보』가 있어, 『석가보』의 저본이나 계통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가의 전기류의 경전으로는 『중본기경』, 『과거현재인과경』, 『보요경』, 『태자수대나경』, 『불본행집경』이 있고, 이들은 모두 『고려대장경』에 입장되어 있지만, 단행경의 유통은 미상이다. 또한, 석가의 전기류 찬술서로는 『석가여래성도기주』, 『석가여래행적송』이 주목된다. 이 양서는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려후기 이래 전승되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타 경전류는 『대방편불보은경』, 『법화경』, 『약사경』 등이 있고, 이 경전은 석가의 전법륜과 관련이 있고, 어느 시기의 설법이나 행적에 해당하는 지는 향후 분석할 필요가 있고, 모두 대장경에 입장되어있다. 기타, 『안락국태자경』과 『목련경』이 인용서로 제시되었다. 한편, 史傳類인 『아육왕전』, 『불조통기』, 『석씨통감』, 『법원주림』, 『종문연등회요』와 호법서인 『파사론』이 인용되었고, 특히 석가 기년과 관련하여 『석씨통감』 이외에 『불조통기』나 『불조역대통재』가 제시되기도 하였다.[38] 이상의 인용서에 대해 대장경에 입장된 경전류를 제외하고, 석가의 전기와 관련된 불전류의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석보상절』의 편찬 과정에서 인용된 史傳類인 『불조통기』, 『석씨통감』, 『종문연등회요』, 『阿育王傳』, 사휘류의 『法苑珠林』, 호법서인 『파사론』이 있고, 대장경 입장서를 제외하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석씨통감』, 『聯燈會要』, 『불조통기』이다. 조선초기에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키로 한다.

『聯燈會要』는 남송의 悟明이 淳熙 10년(1183)에 편집한 燈史 문헌이다. 오명은 남악하 제18세, 임제종 양기파의 인물이다. 『연등회요』는 『전등록』, 『광등록』, 『속등록』 3부

37) 김기종, 위의 논문, 2019에서 김기종은 『석보상절』권6의 장차 45ㄴ1~47ㄱ1, 「大集經 설법」에서 그 인용 전거를 '聯燈會要 卷1'로 제시하였다.

38) 김기종, 위의 논문, 2019. 한편, 오지연, 2016 「『석보상절』에 대한 불교학적 연구와 그 과제: 『석보상절』 불교주해 편찬을 중심으로」, 『불교학보』 77, 2016에서 권6의 저경으로 『불조통기』를 들었다.

의 등록의 회요와 보충이다. 수록 내용은 위로는 七佛에서 아래로는 남악 제18세와 청원 제15세에 이른다. 석가불의 간접기로 권1에서 칠불인 毗婆尸佛에서 釋迦牟尼佛에 이르고, 석가의 생애는『佛本行經』등을 인용하면서, 도솔천에서 내려와 출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하였다.『연등회요』는 일본의 京都 建仁寺 兩足院 소장본 1389년 오산판 등이 전하지만, 고려나 조선초기에 국내 수용 기록이나 전본은 분명치 않다.

『불조통기』는 1269년에 志磐이『석문정통』의 편년체 기술을 변경하여, 기전체의 형식으로 東周 기년의 배치 아래 석가의 생평을 비롯 인도와 중국의 고승의 전기, 천태종 유전의 차례 등을 상술한 천태종의 정사에 해당한다. 본서는 기전체 사서의 형식을 따라 본기, 세가, 열전, 표, 지로 구분되어 있다. 석가의 평생과 사적은 본기의 아래에 권1「教主釋迦牟尼佛本紀第一之一의 明本迹, 敘聖源, 名釋迦, 권2, 一之二에 下兜率, 託母胎, 住胎宮, 示降生, 出父家, 成佛道, 권3, 一之三에 轉法輪(五時인 華嚴 鹿苑 ,方等, 般若, 法華涅槃), 권4의 一之四에 入涅槃, 分舍利, 集三藏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불조통기』의 고려 및 조선초기 국내 전본은 잘 찾아지지 않아,『석보상절』에서의 인용 여부 역시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시된 중요한 인용자료는『석씨통감』이다. 이 역시 국내 전본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석보상절』에 인용되었다면, 고려후기나 조선초기에 수입되어 활용된 새로운 사례가 된다. 이『석씨통감』은 남송의 함순 6년(1270)에 本覺이 편집한 것이다.『석씨통감』은『자치통감』의 체례에 의하여 편성된 편년체 불교사서에 해당한다. 周昭王 甲寅에서 후주 960년까지의 불교사이며, 본서의『採摭經傳錄』에서는 불서 59종을 인용하였음을 제시하였다. 한역 경전은 3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 불교 찬술이다. 불전과 관련한 내용은 卷之一 周나라 甲寅 昭王二十六年의「世尊」條에 釋迦牟尼佛은 賢劫第四佛임을 제시하고, 주 소왕 26년에 中天竺 迦毗羅衛國에서 示生으로부터 壬申 五十三年 世尊應世七十九年 化緣周畢 二月十五日의 열반까지를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석가의 생애를 연보의 형태로 기술하여 생애 전반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한편,『석보상절』이『석씨통감』을 인용한 전거로 제시된,『석보상절』의「出遊四門」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석가의 생애 기년에 대해서 중국 周 昭王 기년, 석가의 나이를 적시하는 부분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 함께 검토한다.[39]

39) 이에 대해 김기종은『불조역대통재』, 오지연은『불조통기』라고 하였으나, 김미경은『석씨통감』으로 보았다. 인용문은 김미경,「석보상절 권3의 불경 발췌 양상 연구」,『한국문화』81, p.335에서 재인용.

①同邪苦行 ᄒᆞᆫ 말도 아니코 안잿거시든 머리예 가치 샷기 치더니 사ᄅᆞ미보고 荒唐히 너겨

②太子ㅣ (ㄱ)彌樓山 (ㄴ)阿藍迦蘭이라 ᄒᆞᆲ仙人 잇ᄂᆞᆫ ᄃᆡ 가샤 (ㄷ)不用處定을三年 니기시고 (중략) ᄯᅩ (ㄹ)欝頭藍弗이라 ᄒᆞᆲ仙人 잇ᄂᆞᆫ ᄃᆡ 가샤 (ㅁ)非非想處定을 三年 니기고 너기샤ᄃᆡ

③出遊四門 [네 門 밧긔나샤미 부텻 나히 열아호비러시니 昭王 마ᄉᆞᆫ네찻 ᄒᆡ 壬申이라]

위의 인용문 ①은 석존이 묵언수행을 하며 움직이지 않아 까치가 머리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인데, 이 문구와 동일한 것으로 제시된 것이'戊寅五十年 : 世尊遷象頭山 同諸外道 日[(歹*又)/食]麻麥 **鵲巢于頂** 以無心意無受行 而外道摧伏 又居六載(正宗記等)'이 있지만, 동일 문구는 『御製佛賦』의"南無人煙之處入於禪定日飡一麻一麦降伏異見**鵲巢於頂**膝穿於蘆苦行六年(『고려장』, 850c15)"가 있어 단정할 수 없다. 인용문 ②는"入彌樓山阿藍迦處 習不用處定者三年(正宗記等) (중략) 乙亥四十七年 世尊遷鬱頭藍弗處 習非非想處定 又三年"(『釋氏通鑑』권1(『卍新續藏』76, p.8b)이라 하여, 장소 및 선정의 종류와 수행 연수에 있어 대동하다. 위의 ③의 석가의 출유사문의 나이 19세에 해당되는 중국의 기년이'昭王 44년 壬申'으로 일치하고 있어 인용의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 『석씨통감』 역시 고려나 조선초기의 수용이나 전본이 확인되지 않고, 타 문헌의 재인용의 가능성도 있어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간행과 유통을 살펴보면, 우선 『석보상절』은 1447년 7월을 전후하여 간행되었고, 그 이후 중간의 자료를 잘 찾아지지 않는다. 『석보상절』의 유통 기록으로는, 조선 성종이 사거하자 연산군 1년(弘治 8년, 1495년)에 인수대비가 성종의 추원 천복을 위하여 『석보상절』 20건을 비롯하여 언해본 『법화경』, 『능엄경』 각 50건, 『금강경육조해』, 『심경』, 『영가집』 각 60건 등을 인출하여 명복을 빌었다. 또한, 練祥(소상)에는 33명의 정려를 모아 전독케 하고, 사원에 시납하여 그 의리를 연궁토록 하였는데,[40] 이때 석가의 전기인 『석보상절』도 주요 사찰에 시납되어 활용되었을 것이다.

40) 學祖, 「弘治 8년 跋文」, 『禪宗永嘉集』. 동국대도서관 소장서의 권말. 이에 대해서는 『석보상절』은 목판본인 점, 당시 『석보상절』이란 서명의 용법으로 보아 『월인석보』라는 견해가 있다. 또한, 이는 1459년 초인과 1495년 중인을 원간본으로 본다(안병희, 「《月印釋譜》의 編刊과 異本」, 『진단학보』75, 진단학회, 1993, p.191).

한편, 『월인석보』는 1459년에 간행 이후 다수의 간행과 유통이 확인된다. 『월인석보』는 전체 25권으로 편찬되었고, 20권이 현전하며, 원간본이 권1, 2, 7, 8, 9, 10, 1, 12, 13, 14, 15, 17, 18, 19, 20, 23, 25의 17권, 복각본은 권1, 2, 4, 7, 8, 17, 21, 22, 23의 9권이고, 초간과 복각본이 모두 있는 것은 권1·2·7·8·17·23의 6권이다.[41]

1542년(중종 37) 안동下柯山 廣興寺(권21, 목판)
1559년(明宗 14) 순천 구악산 無量寺판(권23)
1562년(명종 17) 전라도 순창 구악산 무량굴(권21)
1572년 풍기 비로사판(권7, 8)
1568년(선조 1) 풍기 소백산 희방사(권1, 2, 목판, 권21 판본)
1569년(선조 2) 충남 논산 쌍계사(공주 갑사 유판, 권21 목판)
1607년 안동 下駕山 中臺寺(권7, 8)

이상의 사례로 보면 『월인석보』는 16세기에 다수 중간되었고, 17세기 이후의 간행은 확인되지 않지만, 『월인석보』권21만을 중간한 『지장경언해』가 1762년(영조 38)에 간행되기도 하였다.

2. 사전부 및 사휘류 佛傳類의 간행과 유통

『석가여래성도기주』는 고려후기 1253년 분사도감에서 중간되었고, 조선초 세조대 15세기 중엽에 을해자로 간행되었다. 이 을해자본 『성도기주』는 세조 5년(1459)부터 세조 13년(1467)까지 대마도와 유구의 사신에게 하사하는 불서들 가운데 하나였다. 예를 들면, 세조 5년(1459)에 일본왕에게 보내는 불전으로 『大藏經』 1부, 『法華經』 2부, 『金剛經』 2부, 『金剛經十七家解』 2부, 『圓覺經』 2부, 『楞嚴經』 2부, 『心經』 2부, 『地藏經』 2부, 『起信論』 2부, 『永嘉集』 2부, 『證道歌』 2건, 趙學士書 『證道歌』 2건, 『高峯禪要』 2부, 『飜譯名義』 2부, 『成道記』 2부가 있었다. 이외 세조 6년 일본국 사자 寶桂 하사, 세조 7년 대마도주에게 하사, 세조 8년 대마도주에게 하사, 세조 8년 유구국 사산에게 하사, 세조 10년 대마도주에게 하사, 세조 13년에 유구국왕에게 하사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 『성

41) 강순애, 위의 논문, p.83 ; 김기종, 「『석보상절』의 底本과 그 성격」, 『남도문화연구』38, 남도문화연구소, 2019, p.335 ; 안병희, 「《月印釋譜》의 編刊과 異本」, 『진단학보』75, 진단학회, 1993.

도기』는 『석가여래성도기주』 로 보이는데, 『성도기주』는 권수제가 『석가여래성도기』이고, 『성도기』 본문과 그 도성의 주해가 포함된 것이므로, 『성도기』 혹은 『성도기주』라는 서명이 모두 가능하다.

『성도기주』의 국내 전본은 제2장에서 살펴 본 고려시대 분사도감 간본이 있고, 이후 전승은 조선시대 15세기 중엽 을해자본인 충북 유형문화재 제259호, 부산 선광사 소장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108호 등 2종, 1655年(孝宗 6, 順治 12년) 全羅道 智異山 燕谷寺 개판본이 있다.

『성도기주』는 중국의 대장경에는 입장된 바 없고, 일본의 전본은 寬文 6년 간본, 寶曆 5년 간본, 安永 4년 간본이 있다.[42] 한편, 『성도기』의 일본 전본은 寶曆 5년 간본, 安永 3년 간본, 明治 21년 간본 등이 있다.

『석가여래행적송』은 고려후기 무기에 의해 1330년에 편찬되어 간행되었으며, 위의 <표 7> 조선전기 내용을 포함한 조선시대 간행은 다음과 같다.

<표 9>『釋迦如來行蹟頌』의 간행과 유통

연번	간행지	간행자	간행시기	비 고
1	[漢陽]	刊經都監	조선초기	목활자본
2	全羅 光陽	白雲山 萬壽菴 開板 成佛寺 藏置	1529년(嘉靖8)	通錄撮要合刊
3	미상	미상	간기무,義天書 1571년(隆慶5)	頭流山, 金華道人 義天書
4	전남	頭流山 臣興寺	1572년(隆慶6)	頭流山 金華道人 義天書 1571년(隆慶5)
5	[京畿 朔寧]	水清山 龍腹寺	1643년(崇德8)	義天書1571년(隆慶5)
6	미상	미상	1709년(崇禎紀元後81)	浩然後跋 ,상하2권, 유계
7	미상	미상	미상	天台末學雲默和尙警策

『행적송』의 간행과 유통을 살펴보면, 조선초기 간경도감의 목활자본이 간행되었다.[43] 다음으로 『행적송』의 유통을 전하는 중요 자료로는 위의 <연번 2>인 전남 광양 白雲山

42) 『佛書解說大辭典』권5, p.6.

43)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에 따르면, 이 시기의 판본으로 실물은 전하지 않으나 敎藏 계통의 重刊板本들이 朝鮮朝 世祖 때의 목활자본으로 『釋氏要覽』, 『碧巖錄』, 『釋迦如來行蹟頌』, 『傳法正宗記』, 『圓敎六卽義』 등이 있었다고 한다.

萬壽菴에서 開板하여 成佛寺에 藏置한 판본이다. 이 『행적송』은 1529년(중종 24)에 간행한 것으로, 4종의 문헌이 합책되어 있다. 성불사장본 『행적송』은 본송을 중심으로 주문을 일부 생략한 형태이며, 본송에 주문을 포함한 것은 27그룹 265-268구[44], 28그룹 269-272구[45], 40그룹 493-508구[46], 49그룹 549-560구, 51그룹 605-608구, 52그룹 609-616구의 일부에 그친다.

한편, 성불사장본의 합책 구성은 『釋迦如來行迹頌幷序』, 『通錄撮要』, 『廬山優曇和尙勸修淨業語錄』, 『龍舒普勸修持文』이다. 본서에 합책된 『통록촬요』는 선종의 전등사 문헌으로, 본문 내용은 「宗眼品」 이하의 5품이며, 석존 이하 西天, 東土의 33조를 거쳐 六祖下 제11세까지 도합 88祖의 기연 어구를 수록하였다. 또한 신라, 고려의 35祖의 법명과 어구가 수록되어 있다. 『통록촬요』의 내용은 『행적송』이 인용한 『대장일람집』의 권10의 第八 「第八宗說門之餘」와 다수 일치하며, 특히 『대장일람집』의 6품 가운데 전후 4품과 『통록촬요』의 그것과 품명, 수록자, 어구도 일치한다. 본서를 실지 조사치 못하여 단언키 어렵지만, 편찬자는 석가여래의 전기인 『석가여래행적송』과 석가여래를 계승한 선종의 전등 계보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에서 처음부터 합본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조선시대 『행적송』의 간행은 1571년 金華道人 義天書의 등재본의 계통이 頭流山 臣興寺, 1643년 水淸山 龍腹寺 간행본이고, 1709년 호연의 '崇禎紀元後八十一年己丑(1709)夏也曹溪老漢枕肱門人桂陰浩然謹後跋'의 간행지 미상의 판본이 전하고 있다. 한편, 석가여래의 일대기라는 이름으로 찬술된 우리나라 문헌에 『석가여래행적송』의 영향이 적지 않다. 본서는 앞절에서 검토하였듯이, 조선시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의 편찬시 활용되었다.

---

44) 『釋迦如來行蹟頌』(『한불전』권7, p.760a), "菩薩降魔已竟 結解漏盡 生死已斷 明星出時 霍然大悟 成等正覺 具十八法十種神力四無所畏 于時大地十八相動 天作伎樂 散花燒香 天龍八部所設供養 充塞虛空 此乃周穆王即位第三年癸未二月八日夜 太子是年 年登三十矣."

45) 『釋迦如來行蹟頌』(『한불전』권7, p.760b), "思惟是已 即趣奈苑 二十年中 說四阿含經 八年說方等諸經 二十二年說諸部般若 八年說法華涅槃二經 度盡有緣之衆 能事已畢 年到七十九 入般涅槃也 大綱如是 今引祖文 略示其要 如天台四教儀云 智者大師以五時八教 判釋東流一代聖教 罄無不盡 言五時者 一華嚴時 二鹿苑時 三方等時 四般若時 五法華涅槃時 是名五時 言八教者 頓漸秘密不定此四名化儀 如世藥方 藏通別圓 此四名化法 如辨藥味 是為八教

46) 『釋迦如來行蹟頌』(『한불전』권7, p.761b),周書異記曰 穆王五十二年壬申二月十五日 暴風忽起 撥屋折木 山川覆震 天降雲黑 西方有白虹 十二道南北通過 至夜不滅 王問大史扈多曰 是何徵耶 對曰 西方有大聖人 滅衰相現耳만),

다음으로, 조선전기에 간행되거나 유통된 불서 가운데 석가의 생애만을 다룬 직접기는 아니지만 석가의 생애 전반을 담고 있는 『대장일람집』, 『불조역대통재』, 『경덕전등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3서가 여말선초에 간행되어 유통된 사례는 잘 찾아지지 않지만, 조선전기에 성종 3년(成化 8년, 1472년)에 仁粹王妃가 주요 불전의 판본 소재처에서 『법화경』 60건 등 29종을 模印케 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장일람』 40건, 『불조역대통재』 30건, 『경덕전등록』 10, 『선문염송』 10건이 포함되어 있었다.[47]

『대장일람집』의 조선전기 1472년의 유통본은 해인사장판이나 계명대본의 어느 하나로 추정되지만 분명치 않다. 이후 조선전기에 『대장일람집』의 완본이 간행된 사례는 잘 확인되지 않고, 「대장일람경 조상품」을 저본으로 하는 『造像經』이 1573년 담양 용천사에서 간행되었다. 조선후기에도 1670년 鷄龍山 甲寺, 1740년 함흥 開心寺 개판, 1746년 상주 김룡사 개판, 1824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간행되었는데, 표제는 『造像經』이지만 권수제는 『大藏一覽經 造像品 十四則』이라 하여 『대장일람집』에서 「조상품」만을 발췌하여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타 전남 담양 용화사 소장 萬曆 30년(1609) 인경 시납본이 확인되는데, 이 용화사 소장본은 해인사장판 『대장일람집』의 「조상품」만을 별출한 것으로, 조선시대 불복장과 관련하여 영향을 준 것으로 석가의 생애를 다룬 불전이 아닌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佛祖歷代通載』는 원대 念常의 편찬으로 1341년을 전후하여 간행되었고, 고려나 조선의 전래 시기는 분명치 않다. 본서는 불교사를 편년체로 서술한 것으로, 석가불의 본생과 관련된 것으로 卷1에 七佛偈, 彰所知論器世界品, 日輪, 月輪, 諸星宿, 妙高山三十三天, 情世界總有六種, 器世界壞가 기술되었고, 석가의 생애는 卷3에 世尊示降生, 世尊示出家, 世尊示成道, 瑞像緣起, 世尊示說法, 世尊示涅槃 등이 干支 紀年에 따라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불조역대통재』의 국내 전래 시기는 분명치 않은데, 조선전기 유통으로는 조선 성종 3년(成化 8년, 1472년) 인수왕비의 발원으로 30부를 인출한 기록이 있고, 이 1472년 인출본의 판목 소장처는 불명이지만, 전래본의 중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만력 4년(1576년, 선조 9)에는 전라도 綾城 사자산 쌍봉사 重開刊이 있었다.

『景德傳燈錄』은 선종의 전등사로서 다수 유통되었고, 석가의 생애 전반을 아는 데는 다소 부족하지만, 석가의 전기로서 활용되었을 법하다. 조선시대의 간행으로는 嘉靖 15

47) 金守溫, 「成化 8년 跋文」, 『佛祖歷代通載』. 묵담유물관 소장서의 권제22의 권말.

년(1536) 지리산 신흥사, 隆慶 2년(1568) 법흥산 법흥사, 萬曆 원년(1573) 평안도 순안 法弘山 法興寺 留板, 만력 42년(1614) 은진 佛明山 雙溪寺 개판, 강희 21년(1682) 평안도 묘향산 보현사 개판, 강희 26년(1687) 묘향산 보현 개판이 확인된다. 강희본의 권10 권말에는 청허휴정의 사손인 화엄종주라 칭한 월저도안(1638-1715)의 이름이 확인된다. 특히 위의 제본에는 고려 왕건의 「建」字 피휘가 있어 고려 전본 계통임을 알 수 있다.[48]

Ⅳ. 맺음말

佛傳은 석가모니의 생애를 다룬 전기이다. 불교가 중국에 전해지면서 불교 경전이 한역되었고, 그 가운데 2세기 무렵부터 석가의 전기인 불전이 한역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에 처음으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전의 수용도 이루어졌겠지만, 교조인 석가모니에 대한 이해, 즉 석가관을 밝혀 줄 수 있는 불전의 간행이나 유통의 구체적인 기록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또한, 불전 이외 간접기나 略記로 석가의 생애를 다룬 불전류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서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고려후기 및 조선전기에 편찬 및 간행된 불전을 포함하여 불전류의 간행과 유통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코자 한다.

고려후기 불전류의 간행과 유통에 대해서는 고려대장경의 입장 불전류, 고려후기 불전의 편찬과 간행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고려시대 불전의 간행과 유통은 전존 자료의 부족으로 대장경과 교장의 입장 불전류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고려대장경에 입장된 漢譯 佛傳은 대략 17-18종이며, 중국 찬술 불전류로는 최초의 약기인 『이혹론』, 최초의 중국 찬술 불전인 『석가보』 등이 있다. 이상의 불전이 고려시대에 단행경으로의 간행이나 유통은 잘 찾아지지 않는다. 또한, 고려전기 고려교장에 입장된 불전류 가운데 『석씨회요』 등이 있지만 유통본은 확인되지 않는다.

고려후기 불전류를 살펴보면, 한국 찬술 불전류로는 최초의 약기인 『해동고승전』의 유통편의 기술이 있고, 최초의 한국 찬술 불전으로 평가되는 『석가여래행적송』, 기타 불

48) 椎名宏雄, 「朝鮮版『景德傳燈錄』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教學部論文集』7, 1976, p.188.

전으로는『석가여래성도기주』가 주목된다. 같은 13세기 중엽에 분사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대장일람집』은『성도기주』이상으로 불전이 상세하고,『행적송』의 편찬에도 영향을 끼쳤다. 또한, 한국 불전문학의 수용 양상과 전개를 알 수 있는『십지수행기』는 국내 전래 시기와 관련하여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불전의 직접기는 아니지만 석가의 출생과 입멸을 다루고 있는 선종의 등사류가 있고,『조당집』,『경덕전등록』이 그것이며, 선종 어록류인 혜심의『선문염송』에는 고칙을 통하여 석가의 생애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염송설화』는 그 해석에서 부분적이지만 석가의 생애를 찾을 수 있다.

조선전기 불전류의 간행과 유통에 있어 한글의 창제와 함께 편찬되는『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월인석보』가 한국불교사에 있어 자국의 언어로 편찬되고 간행된 불전이라는 점에 있어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석보상절』의 인용서 가운데 주요 자료는 史傳類인『불조통기』,『석씨통감』,『종문연등회요』,『阿育王傳』, 사휘류의『法苑珠林』, 호법서인『파사론』이 있고, 대장경 입장서를 제외하면, 특히 주목되는 것은『석씨통감』,『聯燈會要』,『불조통기』이다. 이들 3서는『석보상절』등에서 인용이 확인되지만, 국내 전본이나 유통의 기록이 없어, 향후 보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사전부 및 사휘류의 불전류로는『성도기주』,『행적송』이 조선시대에도 간행되어 활용되었고, 석가의 생애를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는『대장일람집』,『불조역대통재』,『경덕전등록』도 유통되었다.

고려후기와 조선전기 불전류의 간행과 유통에 있어 시기의 장기성으로 불전 간행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직접기에 해당하는 한역 불전은 대장경의 입장에 한하며, 중국 찬술 불전인『석가보』,『석가씨보』를 중심으로, 고려후기의『행적송』이나 조선전기의『석보상절』의 편찬에 활용되는 한편 단행경으로 유통되기도 하였다. 둘째, 불전의 간접기와 약기는 史傳部나 사휘류의 찬술을 통하여 찾을 수 있고, 당대의 석가 신앙이나 석가관 등에 대해서는『대장일람집』, 선종의 등사류인『경덕전등록』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행적송』이나『석보상절』등의 편찬 인용 문헌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행적송』에『대장일람집』등,『석보상절』에『석씨통감』등 새로운 인용 문헌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문헌학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2발표 논평]

「고려후기 및 조선전기 불전류의 간행과 유통」에 대한 논평

이 병 욱
고려대학교

이 발표문은 고려후기와 조선전기에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를 서술한 저술[佛傳]의 간행과 유통을 다룬 글이다. 우선 고려대장경과 의천의 『교장총록』에 포함된 불전을 검토하고, 그밖에 『해동고승전』, 『석가여래성도기주』, 『대장일람집』, 『석가여래행적송』, 『석가여래십지수행기』와 선종의 저술, 곧 『선문염송집』, 『조당집』, 『경덕전등록』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전기에는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간행과 유통을 다루고, 『석가여래성도기주』와 『석가여래행적송』의 조선전기의 간행사실을 다루고 있다. 그밖에 『대장일람집』, 『불조역대통재』, 『경덕전등록』이 조선전기에 간행된 사항을 살펴보고 있다.

이 발표문의 특징은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저술도 함께 포함해서 검토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이 발표문에서 검토한 저술의 범위도 넓어졌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저술이 간행되고 유통된 사회적 의미와 영향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하겠다. 그리고 발표문에서 『석가여래성도기주』를 검토한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도 아쉽다고 할 수 있다.

1. 『석가여래십지수행기(釋迦如來十地修行記)』는 석가여래가 부처가 될 때까지의 과정을 10단계, 곧 10지 수행에 맞추어서 서술한 책이다. 1지부터 9지까지는 석가모니 부처의 전생의 수행에 관한 것이고, 10지에서는 현세에 나타난 석가모니의 내용을 담고 있다. 1지부터 9지까지는 『자타카(전생담)』에 관한 것이다. 다만 7지의 내용은 고려국의 내용도 나오는데, 불전(佛典)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선행연구에서 '고려찬술설'과 '중국찬술설'이 서로 제기되어 있다.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기존의 학설은 '고려찬술설'이다.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끝부분(십지)에 태정 3년(1328, 충숙왕 15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1328년(고려후기)에 찬술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학계의 주류 학설이다.

그에 대해서 최연식은 '중국찬술설'을 주장한다.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서문에서 소실산인(少室山人)이 번잡한 내용을 편집하고 새롭게 교정하여 1448년에 이부(伊部)에서 간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소실산'은 중국 낙양의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동쪽의 태실산(太室山)과 함께 숭산(嵩山)의 주요 부분이다. 그러므로 소실산인은 중국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또 『석가여래십지수행기』를 간행한 '이부'는 명나라 때에 황자(皇子) 등의 황실 친족들을 관리하는 관서이다. 따라서 『석가여래십지수행기』는 명나라 초기에 황실의 부서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책의 발문(1660년 현종1년)을 보면, 이 여래의 행적(『석가여래십지수행기』)이 동국(東國: 조선)에는 아직 유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서 1328년에 처음 찬술된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모본(母本) 또는 조술본(祖述本)도 중국 원나라 사람에 의해서 찬술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연식, 「조선후기 불교소화집(佛教小話集)의 수용과 유통」, 『불교학보』 80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7, 120-122.)

이 『석가여래십지수행기』는 조선후기 불교계와 일반인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글소설 「적성의전」은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6지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 「적성의전」은 많은 이본이 있으며 널리 유통된 한글소설이다. 「금송아지전」은 『석가여래십지수행기』의 7지에 큰 영향을 받고 창작되었다.(최연식, 앞의 논문, 122-124.)

2. 이 발표문에서는 조선전기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간행된 『석씨원류(釋氏源流)』를 다루고 있지 않다. 『석씨원류』는 1425년 명나라 승려 보성(寶成)이 편찬하고 간행한 불교역사 관련 저술이다. 이 책은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도와 중국의 불교역사를 400여 항목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의 1권과 2권에서 석가여래의 행적과 인도에서 불법이 계승된 것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석씨원류』는 『석가여래성도기주(釋迦如來成道記註)』(『만속장경』130권에 실려 있음)와 관련이 있는 저술이기 때문에 발표문에서 이 내용이 빠진 것이 아쉽다. 선행연

구에서 『석씨원류』의 서문의 일부 내용은 『석가여래성도기주』의 시작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밝힌다. 이는 『석씨원류』의 편찬에는 『석가여래성도기주』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석씨원류』가 조선후기에 활발히 유통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후기 불교미술과 문학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18세기 전반기에 예천 용문사, 지리산 천은사, 나주 운흥사, 순천 송광사, 하동 쌍계사 등의 전각에 팔상도가 그려졌는데, 이 팔상도는 조선전기의 『월인석보』의 팔상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석씨원류』의 삽화를 채택해서 다양하게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또 문학의 분야에서는 조선후기 찬술된 『팔상명행록』에서 『석씨원류』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팔상명행록』은 작자와 찬술시기가 알려지지 않은 한글불서이다. 이 책에서는 석가모니의 일생을 8상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짧은 이야기를 모아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상당수가 『석씨원류』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추후 『석씨원류』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기대된다.(최연식, 앞의 논문, 112-116.)

3. 『석보상절(釋譜詳節)』도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인데, 이는 1447년(세종29년)에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으로 인해 어머니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편찬하고 간행한 것이다. 『석보상절』은 모두 24권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는 일부만 남아있다. 이 『석보상절』은 최초의 한글활자본이고, 최초의 한글 산문작품이며, 최초의 언해불전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특히 국어학계에서 이 책을 주목했고, 그 동안 『석보상절』의 저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왔다. 최근에 『석보상절』의 저본에 대한 연구가 더 진척되어 그 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저본이 『석가여래성도기주』와 『역대편년석씨통감(歷代編年釋氏通鑑)』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김기종, 「『석보상절』의 저본과 그 성격」, 『남도문화연구』38집, 2019, 321-352.) 이러한 것은 『석가여래성도기주』가 후대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조선시대 세종이 지은 석가모니 부처의 일대기이고, 『월인석보(月印釋普)』는 세조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하고, 『석보상절』의 내용을 해설로 해서 하나로 묶은 책이다. 『월인석보』은 모두 2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20권이 전한다.

4. 한국의 팔상도(八相圖)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석가여래성도기주』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팔상(八相)의 통일된 명칭이 나온 것은 『석보상절』(1447년)로 보이며, 팔상도의 전형적 양식은 1720년 전후한 운흥사(雲興寺)와 송광사(松廣寺)의 팔상도에서 확립되었다. 이는 『석보상절』의 '팔상'을 중심주제로 하고, 주변에 『석씨원류(응화사적)』라는 명나라 저술의 다양한 도상(圖象)을 채택한 것이다.(이영종, 「조선시대 팔상도 도상의 연원과 전개」, 『미술사학연구』, 215호, 1997, 27-54.)

그런데 선행연구에서 『석가여래성도기주』가 고려대장경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이영종, 앞의 논문, 38), 본 학술대회의 취지문과 발표문에서 『석가여래성도기주』가 고려후기 1253년 분사도감에서 간행한 것이 파악되었으므로 『석가여래성도기주』가 한국의 팔상도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로 인도의 '팔상'은 굽타시대 이래 고정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팔상'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인도의 '팔상'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비주류에 속하는 '팔상', 곧 대승경전과 논서의 '팔상'이 한국불교의 '팔상'과 유사한 점이 있다. 중국의 '팔상'은 『불조통기(佛祖統紀)』에서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석가여래성도기주』와 『조정사원(祖庭事苑)』에서 말하는 '팔상'은 한국불교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것이 중국불교에서는 주류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다.(이영종, 앞의 논문, 28-37.)

5. 발표문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려와 조선시대에 『석가여래성도기주』를 간행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면, 『석가여래성도기주』는 『석보상절』에도 인용되어 있고, 『석씨원류』에는 서문의 일부가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한국 팔상도 명칭의 기원이 되었다.)

② 『석가여래성도기주』가 뒤에 나온 석가모니 생애를 다룬 저술[佛傳]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석가여래성도기주』와 조선후기에 간행되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석씨원류』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④ 『석가여래성도기주』(1034), 『석가여래행적송』(1328), 『석가여래십지수행기』(1328), 『석보상절』(1447)의 관련성에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앞으로 과제가 될 것이다. (참고로 김지영, 「「석가여래행적송」과 『석보상절』의 비교 연구」, 『불교연구』47집, 한국불교연구원, 2017이 있다.)

⑤ 『석가여래십지수행기』는 고려찬술설과 중국찬술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발표자의 관점이 궁금하다. (고려찬술설의 단점은 무엇이고, 중국찬술설의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지 사항▐

1. 불교학연구회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kabs.re.kr** 입니다. 회원가입을 통해 학술대회 자료를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학술대회 영상은 YouTube(불교학연구회 검색)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2. 불교학연구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학연구』의 모든 논문은 저널홈페이지 **http://journal.kabs.re.kr 에서** 자유롭게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며 RIS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3. 불교학연구회는 한국연구재단 선정(2015년) 불교학분야 최초의 우수등재학술지 [불교학연구]를 지난 20여간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학회지는 년 4회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되며 2021년도에는 66~69호가 발간됩니다. 논문투고는 투고시스템 **http://submission.kabs.re.kr** 로 접속 후, 회원 가입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불교학연구회에서는 여러분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학연구회 회비 및 후원금 안내 ○

학회 회비는 학회운영과 불교학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개인 : 일반 年 5만원, 평생회원 100만원

2) 기관 : 年 10만원

3) 임원 : 회장 年 100만원, 부회장 年 50만원

상임이사 年 30만원, 일반이사 年 10만원

4) 후원 : 후원 보시금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10-498-846026 (예금주 임승택)

▶ 연 락 처 : bulgyohak@daum.net / ☏ 010-4313-2122 [문자 연락]

▶ 홈페이지 : www.kabs.re.kr

불교학연구회 2020년도 겨울 워크숍에 참가해주신 발표 및 사회·논평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